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May 2013 vol.98

이달의 이슈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고정민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
라도삼

생생리포트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김재묵
인포그래픽스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
서울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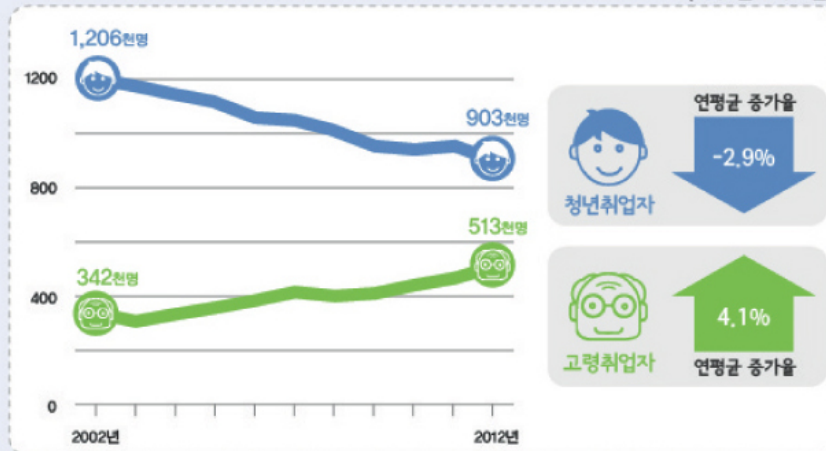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5

서울,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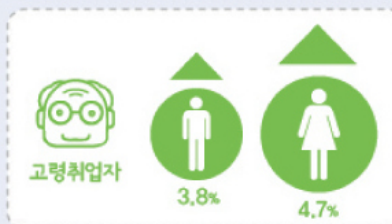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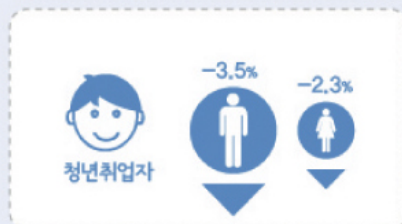
(2002년~2012년)



- 서울시 취업자 수는
2002년 4,783천명에서
2012년 5,036천명으로
연평균 0.5% 증가

- 청년취업자 수는
연평균 2.9%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수는
연평균 4.1% 증가

- 청년취업자 수는
남성이 연평균 3.5%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
고령취업자 수는
여성이 연평균 4.7%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



■ 청년층 ■ 고령층

주: 청년취업자 15세~29세, 고령취업자 60세이상
자료: 2002~2012 행정구역 성/연령별 취업자 (통계청)

이달의 이슈 3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고정민(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10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
라도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생생리포트 23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김재묵(종로구청 복지환경국장)

인포그래픽스 31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동향 37 **요 약**
39 **생 산**
42 **소 비**
44 **고 용**
50 **물 가**
52 **부동산**
58 **금 융**
67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부록 73 **통계표**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spin3001@naver.com



1. 창조경제시대의 도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동물이 범접할 수 없는 최상의 능력은 창의성¹⁾이 아닐까 한다. 창의성이야말로 모든 종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가장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창의성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필요로 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는 창의성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로 등장한 창조경제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사실 창조경제란 말은 2000년대 초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비즈니스위크지의 기사와 존 호킨스 교수의 창조경제란 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창조경제란 말이 거론되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경제정책의 슬로건으로 사용된 이후 창조경제에 대해 많은 토론과 심포지엄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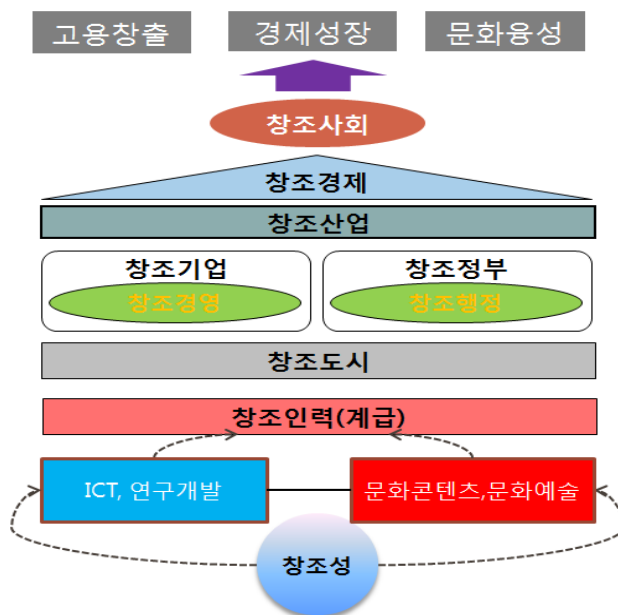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 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 MBA 교수,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삼성영상사업단 팀장
- 가치사슬로 본 문화산업 창의성 요소에 관한 연구(2013), 창조경제시대의 융합의 유형과 촉진방안(2013), 국제간 경제협력통합에서 문화의 역할(2013),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2013), 문화예술 후원의 10가지 이유(2013), 지역균형발전시대, 창조도시와 클러스터전략(2013) 등

1) 창의성은 창조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조경제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고 정의되고 있다. 모방이 아닌 창의로 승부해야하는 창조경제시대는 지식경제를 넘어 경제주체의 창의성이 극대화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시대이다. 즉, 창조경제의 시대에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기반이 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인력, 기업, 정부, 도시, 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근저에는 창의성이 있다. 즉, 창조경제는 산업차원에서 창조적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 지역적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창조적 인재를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창조도시, 창조적인 행정을 통해 창조사회를 건설하는 창조정부, 최종 제품생산의 주체로서 창조경영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창조기업, 창조경제시대 각각의 구성요소에 필요한 인력으로서의 창조계급 등의 다양한 생태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구성단위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능화 되었을 때 창조경제와 창조사회가 실현된다¹⁾.



[그림 1] 창조경제의 체계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를 경제의 주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융합, 참여, 개방, 네트워킹과 같은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다. 창조경제시대에는 이질적인 두 개체 간에 융합을 하여 새로운 개체가 탄생할 수 있고, 제작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이 인

1) 고정민(2009), 창조지구, 문화산업의 전위, 커뮤니케이션북스.

터넷 시대에 모든 경제주체가 동시 다발적 참여를 통해 창의성의 풀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이질적인 요소를 유입시키기 위해 개방이 필요하고 외부와 내부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통해 창발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2. 창조경제에서 문화산업의 역할

2000년대 초부터 창조경제를 이끄는 견인차는 문화산업이라고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의 전면에 부각되면서 창조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산업이 과연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창조경제시대에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시대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창조경제시대에 문화예술과 콘텐츠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창조경제는 창의성이 각 분야에 스며들어서 혹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존의 상황이나 산업보다 더 나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산업이나 분야가 그 내부에 창의성이 얼마나 내재되었는지를 보면 창조경제시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산업은 전체 가치사슬에서 창조성이 발현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 가치사슬 상 기획, 제작, 소비 단계 모두가 창조성과 연관되어 있다. 기획은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계획하는 단계로 여기에서 전체 줄거리가 결정되므로 창조성을 가장 잘 구현하는 단계이고, 제작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창조성의 요소인 다양한 해석과 문제해결, 그리고 정교성이 길러지는 단계이다. 소비는 창조성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문화산업의 경우 감상 등을 통해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분석력, 비판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키우는 창조활동이다. 결국 문화산업은 상상력, 창의성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것이다.

문화산업 인력측면에서 보면, 문화산업에서 인력은 남들과 다른 생각, 전통과 현대의 융합, 유연하고 독창적인 사고, 전략적 사고와 보유 자원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역시 창의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창조경제의 구현은 바로 창조도시라 할 수 있는데, 창조도시도 사실은 문화산업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네트워크는 영화, 공연, 음식, 디자인 등 대부분 문화산업과 연관되어 있고, 한국에서 창조도시로 가입되어 있는 3개 도시(이천, 서울, 전주)도 문화도시인 것이다.

창조산업으로 본다면 문화산업과의 연관성은 더욱 높아진다. 영국이나 UNCTAD는 창조산업을 13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문화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문화산업 외의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 패션, 건축 등 일부이다. 따라서 창조경제시대를 이끄는 창조산업은 문화산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 중심이므로 창조산업의 범위는 기존 13개 산업에서 좀 더 넓혀 과학기술, ICT를 포함하는 광의의 창조산업으로 범주화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산업에는 CT(Culture Technology: 문화기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창조산업에서 문화산업의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사실 창조경제시대는 상상력과 감성이 과학기술과 융합하고 사이버 기술과 디지털화 등의 ICT 기술이 부각되는 시대이면서 소득증가, 주5일 근무, 문화욕구의 다양성 추구하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는 시대이다. 또한 20세기 기능(제품) 시대에서 21세기 ‘기술+감성’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고, 상품의 기능(기술)은 이야기(상상력)를 담아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이다. 즉, 상향평준화 되는 상품들 사이에 사람들은 더 이상 제품이 아닌 이미지와 스토리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이런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CT는 이러한 기술과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합한 기술이다. ‘창조, 상상, 감성’ 기반의 새로운 재화 및 서비스 경제가 대두되고 콘텐츠에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며, 기술적 창조성(Technological Creativity)을 발휘하는 분야가 CT이므로 CT는 창조경제시대에 적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요 패러다임 변화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세계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5.8%가 예상된다. 2011년 세계 문화산업 시장은 1조 604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2조12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1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2995억 달러, 2010년 자동차산업 시장규모 7,875억 달러임을 볼 때 문화산업은 매우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매출 및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문화산업 매출액은 88조원(추정)으로 5년간 연평균 8.4% 증가를 시현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수출액은 48억달러(추정)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산업은 창조경제시대에 국가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이면서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적인 속성(콘텐츠), 과학기술로서의 속성(CT)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다차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이 미래부의 ICT, 과학기술과 결합하면 과학기술적인 창조경제실현이 가능하고 문화부, 방통위와 협력하면 문화예술적인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3. 서울시 문화산업 현황

문화산업은 대도시형 산업이다. 문화산업이 최종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산업이므로 많은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적되어 있고, 제작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유행을 파악할 수 있고 창의적이면서 고급 문화산업이 많은 대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에 문화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매출기준으로 보면 2011년 우리나라 문화산업 총 매출 약 70조 원 중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66.7%로 46조6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장률은 10.4%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10.7%와 비슷하다.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미 매출규모가 큰 지역의 성장률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성장률과 비슷하다는 것은 성장의 힘이 여전히 남아 있고, 앞으로 성장잠재력도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문화산업 지역별 매출추이

(단위: 10억원)

	2009	2010	2011	전년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서울	38,195	41,708	46,577	11.7	10.4
6개시	5,222	5,231	5,751	9.9	4.9
9개도	13,519	14,745	17,481	18.6	13.7
합계	56,936	61,683	69,809	13.2	10.7

주: 6개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개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산업통계

분야별로 보면, 서울 출판 산업의 비중이 서울전체에서 26.4%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이어서 광고, 지식정보, 게임의 순으로 되어 있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 매출비중이 높은 산업은 방송관련 산업으로 광고와 방송독립제작사가 여기에 속한다. 광고는 한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 방송독립제작은 87%에 이른다. 한편 만화, 캐릭터, 게임 등은 그 비중이 낮는데, 이는 만화는 부천, 게임은 성남 등으로 특정 지역에 이들 산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 문화산업 지역별 분야별 매출(2011년)

(단위: 10억원)

	서울	6개시	9개도	합계
출판	12,312	1,896	5,819	20,027
만화	343	69	283	695
음악	2,324	477	988	3,789
게임	5,061	537	3,207	8,805
영화	2,550	517	853	3,920
애니메이션	262	37	82	382
방송독립제작	785	25	86	896
광고	11,343	325	505	12,173
캐릭터	3,844	976	2,389	7,210
지식정보	5,568	685	2,792	9,046
콘텐츠솔루션	2,184	205	478	2,867
합계	46,577	5,751	17,481	69,809
비중(%)	66.7	8.2	25.1	100.0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산업통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31.0%로 매출기준 66.7%에 비교해보면 낮은데, 이는 서울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평균 기업보다도 훨씬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에 대기업이 몰려 있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대도시형이라는 문화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역별 문화산업 종사자 수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서울이 전체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8%로 사업체수의 31%에 비해 높다는 것은 사업체당 종업원 수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문화산업 지역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2011년)

(단위: 개, 명, %)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	34,315(31.0)	273,314(49.8)
6개시	30,084(27.2)	86,912(15.8)
9개도	46,118(41.7)	188,271(34.3)
합계	110,517(100)	548,497(100)

주: ()는 비중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산업통계

4. 서울시 문화산업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시대 실현

문화산업은 매출액 자체뿐만 아니라 한류를 유행시키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많아 서울시는 압도적 위상의 문화산업으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관광객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에 확산된 한류의 덕이고, 강남에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것은 싸이 강남스타일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더구나 문화산업은 부가가치비율이 높고 일자리 창출에 탁월한 분야로서 저성장에 접어들고 청년실업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적합한 산업이다.

특히 창조경제시대에 더욱 그 빛을 발하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의 문화산업은 서울시의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가 기울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시는 그 수혜에 비해 지원은 적다고 하겠다. 서울시는 문화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청년고용을 창출하며, 문화행복을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서울시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융합, 개방, 참여, 네트워킹 등의 창조경제의 키워드에 적합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기업과 제조업 등의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동시에 이들 간 동반성장을 통한 원인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와 사이버상에서 크라우드딩 소싱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 창작과 유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한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이 진정한 창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이질적인 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여 창조적 진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산업 분야에서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교류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활발한 창업과 스핀오프를 통한 창의적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서울시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



라도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kuber21@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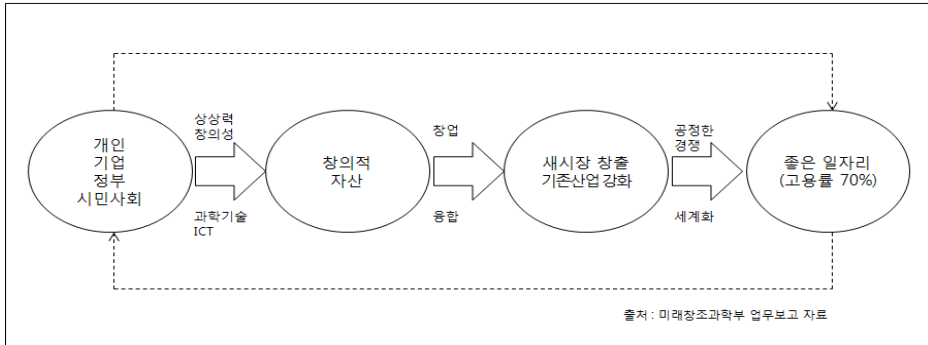
1. 창조경제론의 부상

창조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기능을 갖추면서부터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창조경제를 매개로 한 다양한 모임이 개최된 바 있고, 각종 보고서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¹⁾ 실행을 위한 제반의 준비는 다 마친 듯하다.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창조경제론은 한마디로 말해, 개인,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점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살려, 창의적 자산으로 만들고, 신산업과 기존산업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업을 일으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해 보자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 라도삼,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 연구 등

1) 여기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포털사이트’(www.creativekorea.or.kr)를 참고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 동 사이트에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포럼 등) 및 정보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그림 1] 새 정부의 창조경제 흐름도

때문에 창조경제론에서 핵심은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를 산업화 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산업적·생산적 자원으로 쓰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이 아이디어 창출을 돕겠다는 것이고, 산업화·기업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인재 육성, 창업지원, ICT 발전, 기존 산업구조의 혁신 등 새 정부의 주요한 정책은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하는 ICT,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의 혁신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론은 서울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어떤 도시보다 ICT가 발달되어 있어 산업화를 위한 충분한 여건을 지녔고, 점차 떨어지는 성장잠재력에 어떤 탈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변환점에 서있는 도시가 서울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창조도시론은 공유경제 등 여러 형태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서울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서울시의 정책방향 하에 창조도시론이 갖는 의미와 전략을 분석하고, 이의 활용방안과 교차 접점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그 흐름과 방향이 일정정도 제시되었기에 향후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왜 창조경제론인가?

창조경제론의 부상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인간심리 측면과 △과학기술혁신 측면, △국내경제 현실측면으로 분석한다.¹⁾ ‘인간심리 측면’에선 인간욕구가 증대했다는 것으로, 소득증대에 따라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며 창조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

1) 현대경제연구원,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 정부의 실현전략,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530호, 2013.03.22.

련했다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 혁신측면’에선 ICT 등 과학기술의 급속발전과 기술-산업의 융복합화 등을 원인으로 든다. 이미 사회는 ICT 기반의 여러 산업-IT, BT 등-을 창출하고 있고,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는 ‘제3차 제조업혁명’을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제3차 제조업혁명’이란, SNS나 인터넷 등 IT기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와 투자자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상품화, 이익배분까지 이루어지는 「협력적 생산시스템」(Collaborative Manufacturing System)을 말한다. ICT의 기반의 새로운 제조혁명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모델이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표 1> 제조업 혁신의 흐름

	1차 제조업혁명 (19세기)	2차 제조업혁명 (20세기)	3차 제조업 혁명 (21세기)
추세	Machine-based Production	Mass Production	Collaborative Manufacturing
동인	수력, 석탄, 증기기관, 철도	석유, 내연기관 자동차	정보·지식 네트워크화 융합화
내용	-경공업 -면직물, 제철	중화학공업 철강,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신기술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신소재(탄소섬유), 신에너지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전략,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 530호, 2013.03.22., p.6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국내경제 현실측면’에선 저성장의 기조, 고용 없는 성장심화, 성장잠재율 하락 등을 원인으로 든다. 성장은 3%대에서 고정화되어 있고, 전산업의 고용유발 계수는 8.3에 불과하다. 08년에서 12년 사이의 잠재성장률이 3.8%로, 70년대의 1/3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새로운 대안뿐이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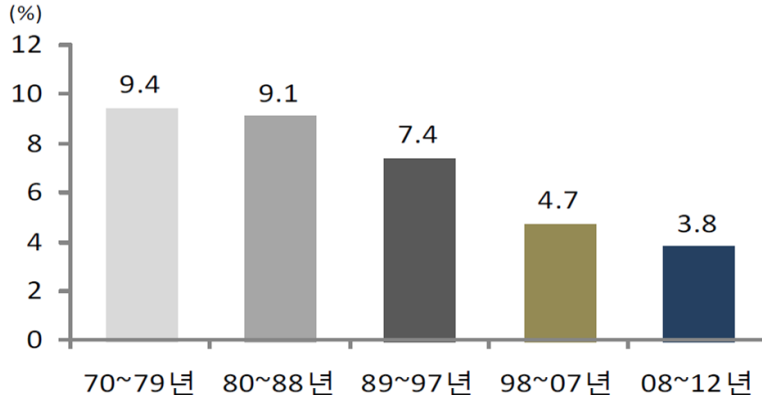
<표 2>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변화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8
전산업	26.8	18.1	12.4	9.9	8.3
제조업	27.1	15.9	9.7	7.2	-
서비스업	27.7	21.6	15.4	12.6	-

자료 : 한국은행

주 :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액 10억원당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고용자 수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전략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530호, 2013.03.22.p.7



[그림 2]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경제위기와 산업적 패러다임의 전환, SNS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의 발전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분출되고 산업화되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에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계를 따라잡는 추격형 경제에서 세계를 이끄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3] 창조경제 추진목표 및 메카니즘

충분한 기술여건과 인적 자원역량을 이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실제로 우리는 OECD 전체를 포함하여 가장 강력한 ICT자본을 갖추고 있다. ICT자본지수는 8.6으로 세계1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등이다. 아직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화자원화 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이 부분을 바꿔, 세계적인 선도경제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표 3> 한국과 OECD 31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결과 비교(2011)

구분	인적자본	혁신자본	ICT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창조경제 역량지수
한국	6.5(22)	5.4(11)	8.6(1)	3.7(29)	6.7(21)	6.2(20)
OECD 31개국 평균	7.3	4.9	6.9	4.7	7.5	6.3

주: ()은 순위. 이스라엘, 터키, 칠레 등은 누락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지속가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531호, 2013. 03.22, p.7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문화적인 전환부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취급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여기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3. 창조경제론의 전략과 정책

익히 알다시피 본래의 창조경제론은 창조산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를 얘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창조경제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를 ‘창조성 기반의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창조생산품의 거래, 즉 $CE=CP \times T$ ’로 정의한 바 있다.¹⁾ 즉,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육성을 전제로, ‘연구개발,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산업디자인, 영화, 음악, 완구류, 광고, 공연예술, 건축, 공예, 비디오게임, 패션, 미술’ 등을 창조경제로 본다.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은 이후 창조경제를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08년과 2010년 세계 창조경제를 분석한 ‘창조경제보고서’(<The Creative Economy Report>)에서 전통, 예술, 미디어와 실용적 창조의 4대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들을 창조산업이라 분류한 바 있고, 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 또한 창조산업을 각 문화매체 관련 산업군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²⁾

1) J. Howkins, “The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 in the UK”, Nesta, 2007

2)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ISSUE PAPER 2013-01)을 살펴볼 만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이와 궤를 달리한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영국과 우리나라와는 그 경제 진화 단계가 다르며, “신정부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혁신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경제구조, 즉 창조성 중심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 또한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창조경제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²⁾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기존의 창조경제론이 주로 문화-예술-디자인 등의 산업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면, 현재의 창조경제론은 산업(육성)논리라기보다는 (산업)혁신논리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그 수혜의 대상이나 접근전략이 모호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³⁾

<표 4> 기존 창조경제론과 현 정부의 창조경제론

	기존 창조경제론	현 정부의 창조경제론
개념	무에서 유를 창조 (문화예술관련 산업중심)	무에서 유를 창조+융합적 창조 (과학기술과 ICT 기반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융합)
중점 전략	문화창조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혁신 융합형 신산업육성
목표	고유성 창출	혁신성 강화
핵심 사업	창의인재 유치·육성	창업지원
기술 기반	컴퓨터 웹기반	HP 등 다양한 기기 SNS 기반
중점 대상	도시나 지역혁신 발전	산업구조 전반
추진 주체	문화관련 부처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역관련 기관	과학 및 ICT전담부처 정부 전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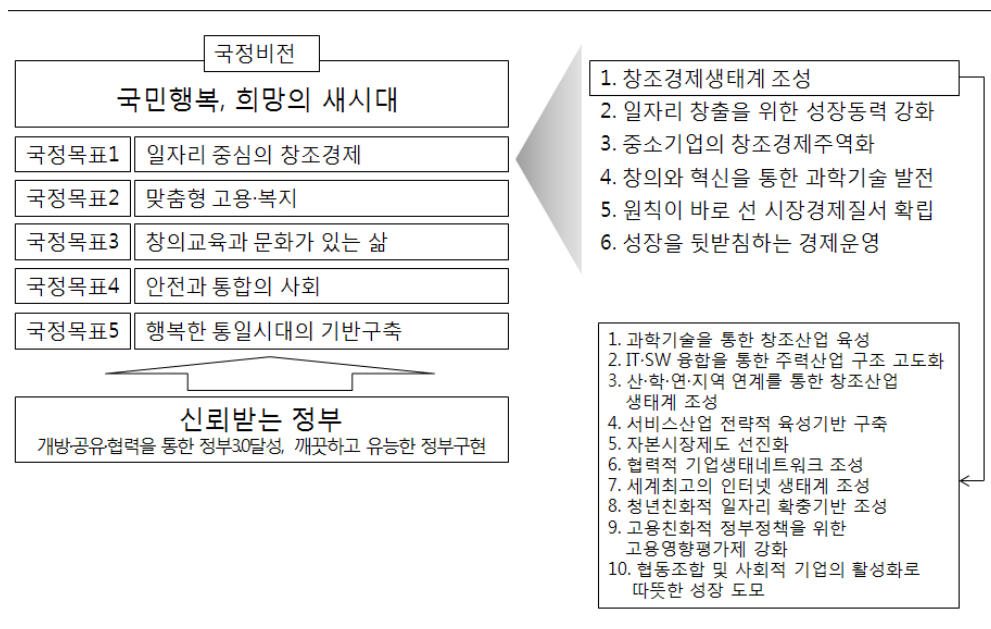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경제론과 달리 현재의 창조경제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ICT기반의 산업과,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를 융합하는 ‘융합적 창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즉, 기존 산업의 혁신이나 재창조, 융합을 통한

1) 이민화, ‘역동적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하려면’, <공감Korea>, 2013. 4., 문화체육관광부

2) 유병규,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전략”,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2013. 3. 26

3) 이에 대해서는 <주간경향> 1028호(2013년 6월) ‘창조경제논란’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신산어의 창출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 결과 창조경제론을 위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아이টে은 △새로운 생각의 창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유도, △ICT 바탕의 산업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창출과 기존산업 혁신,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ICT산업의 발전 등이다.



[그림 4]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 창조경제

실제로, 우리나라는 매우 뛰어난 과학기술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50조로 세계 6위고, GDP 대비로 보면 4.03%로 세계 2위다. 그러나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은 20%로, 영국의 71%, 일본의 54%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에 정부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주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체부>는 ‘상상력콘텐츠기금’과 그에 바탕을 둔 <콘텐츠 코리아 랩>을, <중소기업청>은 ‘무한상상 국민창업프로젝트’를, <미래부>는 <무한상상실>을 전국 과학관과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ICT 산업 육성차원에서 정부가 주력하는 것은 창조경제생태계의 조성과 과학기술 발전이다. 대·중소기업간 SW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SW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R&D 특구-과학벨트-과기특성화대학을 연계,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R&D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미래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모호한 것은 ICT기반의 산업혁신, 즉 ‘제3차 제조업혁명’에 대한 것이다. 아직은 그 어떤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확연한 상(象)을 제시하고 있진 않다. 비관론자들이 말하듯, 아직은 개념적인 것이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과제 자체가 어려운 만큼, 그 해결과정도 주목된다.

4. 서울에게 주는 시사점

여러 모로 창조경제론은 서울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창조경제와 관련된 직접적 산업분야인 창조산업이 서울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2011년 현재 총943개 업체가 서울에 자리 잡고 있다. 총 매출액 2조1,840억원 규모로, 매출액으로는 전국의 76.2%, 사업체 수로는 72.5%가 서울에 밀집해 있다. 창조경제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¹⁾

기초적인 예술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2011년 총29,214작품이 거래돼, 3천8십억원 규모를 자랑하는 미술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미술시장의 핵심인 화랑의 58.6%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 총 371개의 화랑 중 종로에 115개(31.4%), 강남에 74개(19.9%), 서울 기타지역에 27개(7.3%)가 있다.²⁾

공연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전체 공연시설 중 35.9%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시설 자체는 밀집도가 낮으나, 정부의 균형적인 정책의 결과일 뿐, 실내용 상에 있어선 다르다. 공연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91일에 반해 서울은 151일로 압도적으로 높다. 공연장 수입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31.7%인데 반해 서울의 자립도는 40.7%로 높고, 대학로는 무려 80% 이상을 정부보조가 아닌 자체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 자체만 보면 서울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³⁾

다른 한편, 서울 또한 혁신해야 할 전통적인 산업들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성수동 등 준공업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에는 다양한 제조산업이 존재하고, 아현동 가구거리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특화밀집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조금만 혁신을 하면 바로 매력적인 창조지역으로 변신 할 수 있으며, ICT를 매개로 한 혁신할 경우,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론에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등 여러 유형의 전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전략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서울시는 현재 <사회혁신담당관>을 두고,

1)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콘텐츠백서>, 2012

2)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미술시장실태조사>, 2012

3)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연시장실태조사>, 2012

‘혁신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혁신파크’에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청년일자리 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다양한 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사회적 경제 기반의 공유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ICT 기반으로 여러 사고를 창출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기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융합형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그 끝 점이 성장을 위한 재도전이나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이냐에 따라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전술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서로의 관심사를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창조경제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과 정책방향

창조경제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창조적 인력(사고)의 발굴과 △이를 새로운 기업으로 육성하고, △ICT 기반의 융합형 산업군 형성 등이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일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의 박경현 연구원은 유럽지역의 창조산업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¹⁾ 여기서 그가 주목한 것은 <유럽집행위>는 EU 녹색(EU Green Paper)였는데, EU는 ‘문화창조산업 잠재력 열기’(Unlocking the Potential of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란 녹서를 통해, △실험·혁신·기업가 역량을 증진시킬 조력자를 적재에 배치, △문화·창조산업(CCI)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환경개선, △문화·창조산업(CCI)의 확산효과를 통한 창조경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바 있다.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조력자의 배치와 지역단위의 환경개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 등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지역형성을 위해서는 각종 실험 및 혁신, 기업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들을 배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 양성시스템과 활동을 지원할 기금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자없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역단위 환경개선에서는 지역의 고유성에 바탕을 둔 내재적 발전체계를 갖추는 것과 예술가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창조성의 이동 및 순환촉진이다. 예술가들이 여러 창의적인 능력을 가진 만큼, 이들을 곳곳에 순환시켜 각 지역을 창조적인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EU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동장벽 제거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고급의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여 창조기반의 새로운 경제를 열자는 것이다. 문화창조산업은 디지털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ICT의 발전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문화어메니티, 첨단서비스, 우수한 주거여건, 레저여건, 커뮤니

1) 박경현, EU의 문화·창조산업(CCI) 정책 : 새로운 지역성장동력, <국토정책 Brief>, 제301호, 2010.11.22.

티 등을 형성을 도울 것이며, 그 결과 새로운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서울에 있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요소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재육성의 전략과 이들을 활용하여 여러 혁신의 씨앗을 퍼뜨릴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다. 세계창의성지수를 나타낸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ICT분야에서 세계 최고다. 다만, 사회문화적 지표가 낮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인재를 적극 개발하고 유치하는 노력과 △이들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조적인 섹터와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상력발전소>는 좀 더 빠른 행보를 걸을 필요가 있다. <문체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Contents Korea Lab>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총980억원을 투자, 1,893억원의 ‘상상콘텐츠 기금’을 조성·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중기청> 또한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민창업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민관공동으로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디자인·설계·모형까지 일괄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대응 또한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연구개발특구 조성이 지방을 향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대덕, 광주, 대구 등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부산을 새로운 특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나름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있기에 특별히 조바심 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 둘 옮기다보면 단단할 것만 같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도 순간 해체될 수 있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대한 ICT 산업군이 형성되고, 점차 그 누적이 집중되고 있음을 볼 때,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창조경제론에 맞춰 서울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을 위한 전략적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창조경제론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핵심인 ICT기반의 융합형 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혁신이 모호한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ICT 산업의 육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육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이 패러다임 전환을 중개할 조력자의 발굴(<상상력발전소> 등), △ICT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할 창조적 지역의 발굴·조성, △기존 특화밀집지역의 혁신과 새로운 전략적 자원화를 모색할 정책방안 마련 등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생생리포트

■ 자치구탐방

■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김재묵(종로구청 복지환경국장)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김재묵
종로구청 복지환경국장
kjm207@mail.jongno.go.kr

I. 종로구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현황

II.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2차 사업계획

III. 결론 및 시사점

I. 종로구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현황

전통시장의 부흥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 성공한 전통시장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지자체는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시킨 관광형 전통시장 개발,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고유의 콘텐츠 발굴, 마케팅 경쟁력 확보, 지역 공공장소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종로구 통인시장 역시 2011년 1월에서 2012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통인시장 발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경복궁, 세종마을 등 600년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 있는 통인시장의 특성을 통하여 시장의 정체성과 색깔을 찾았고 통인시장을 문화적 공간과 일상의 관광지로 특성화된 문화 관광형 시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축제기획 (봄맞이 대청소 프로젝트, 시장 조각 설치대회 시상식 ‘통인시장의 위대한 탄생’, ‘유기농 벗짚 체험과 보름달 크레페 카페’, 공개방송 ‘소리로 듣는 사진전’), 상인 역량 강화 (시장 상담실 ‘왕담사’ 시장특강, 사진교실 ‘꿈을 찍는 통인시장’ 가나다 한글교실 통큰합창단, 한의사와 함께하는 오브제 건강체조, 시장 방송 ‘사랑해요 통인씨’ 내맘대로 공방), 콘텐츠 개발상품 (투어지도, 공동체 회사 ‘도시락 카페’), 시각 환경 개성사업 (조명 환경개성사업, 아케이트 개성사업, 공공미술 빚가림, 쉼터 한옥정자)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시장 서측입구 파고라, 쓰레기 배출장소 등 노후된 복합공간을 정비하고, 전통한옥정자를 건립하여 시장입구 환경을 개선하였고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민속놀이 공연마당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한옥 전통정자(전)



한옥 전통정자(후)

[그림 1] 한옥 전통정자 건립 전후

이는 전통시장의 부가가치를 높여 매출 증대로 이어졌으며 시장 출입구 아트게이트 개선사업은 ‘2012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을 수상하였다.



통인시장 아트게이트(전)



통인시장 아트게이트(후)

[그림 2] 시각 환경 개선사업 전후

II.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2차 사업계획

‘통인시장 프로젝트’ 완료 후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고자 2차 사업으로 ‘다시 찾고 싶은 통인시장’이라는 사업을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 중에 있다.

‘다시 찾고 싶은 통인시장’ 사업은 다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버전 글로벌 On-line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1년 내 외국인 10만 명 방문목표, 스토리가 담긴 지도 제작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매력거점 확산·발전, 서울소재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홍보물비치로 관광추천, 종로구 문화관광벨트 중심 홍보영상물로 홍보마케팅,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응대 및 CS교육으로 매출 15% 더 올리기 위생 마케팅교육, 시장 환경개선, 공연,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인시장 프로젝트’가 종료된 2012년 6월, 이에 따른 효과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외부기관 평가를 12월에 시행하였는데,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반영한 종합 평가 결과 총점 107.1점/120점, 전략 달성률 89.2%, 결과 ‘우수’로 평가 되었으며 최근 5년간 통인시장의 매출현황과 이용객수 (2012.7월 기준)는 아래와 같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항목별 평가결과

구 분		시장가치 극대화와 이미지 쇄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 공연 및 강좌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의한 매력도 향상	성공적 사업모델을 통한 유사시장으로 이전	총점
대상	배점	55.0	30.0	35.0	120.0
	점수	46.4	30.0	31.6	108.0
통인 시장	전략 달성률(%)	84.3	100.0	90.3	90.0
	평가 결과	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매우우수

<표 2> 통인시장의 매출현황과 이용객수

(2012.7월 기준)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용객수 (1일)	2,600	2,000	2,300	2,883	3,050
매출현황 (년/백만원)	4,136	4,626	4,974	5,556	2,970

출처 : 통인시장 상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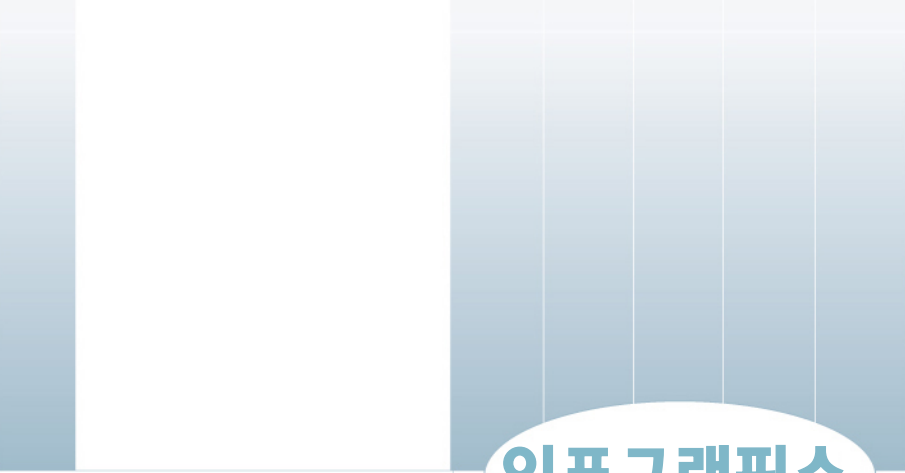
Ⅲ. 결론 및 시사점

그러나 성공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주목적인 이윤 창출 상승과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애초부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은 터무니없는 싸움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편리하고 깨끗한 대형마트를 두고 굳이 전통시장을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이를 인식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넉넉한 인심, 다양한 볼거리, 저렴한 가격 등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색깔을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인 의식 수준을 높여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불신하는 위생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통시장 침체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 전통시장이 침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신들 내부에서 찾아 그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도출했고 전통시장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 이들과 같이, 전통시장 상인들도 정부의 지원보다는 자신들이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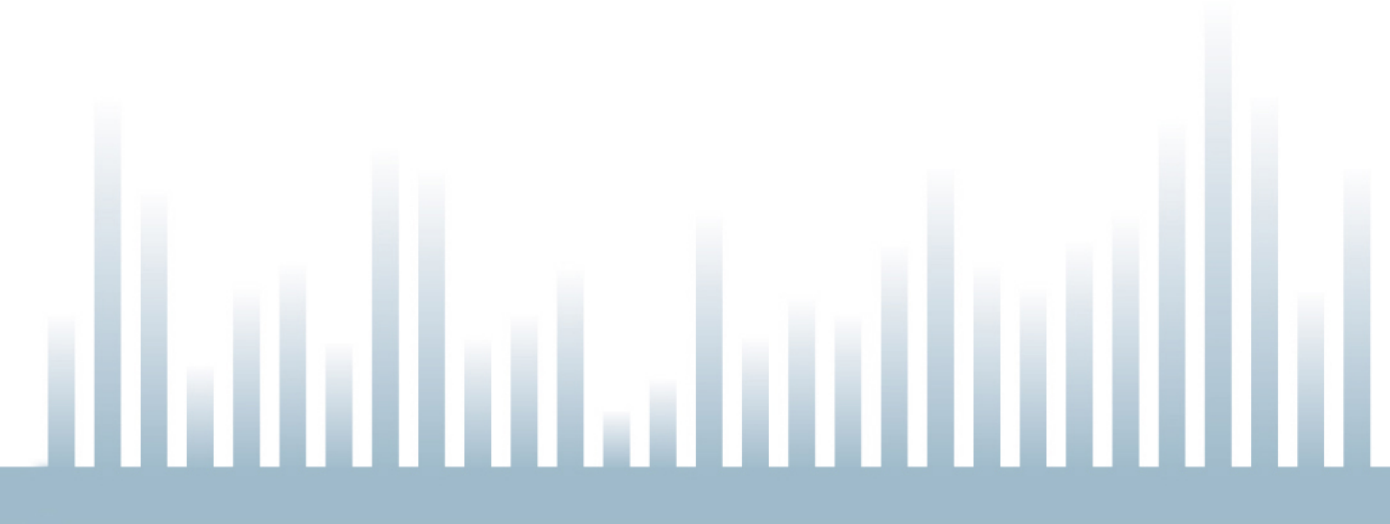
이제 전통시장은 ‘운고지신’의 자세로 좋은 것은 지키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서서히 변화할 때이다. 장인정신을 고집하면서 3~4대로 이어갈 명품 장인가게 조성으로 전통시장의 재탄생을 기대해본다.



인포그래픽스

■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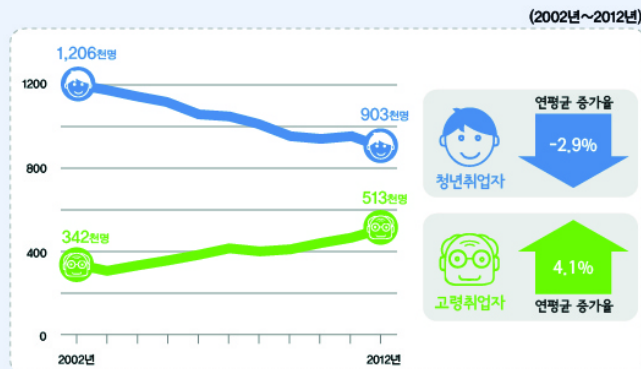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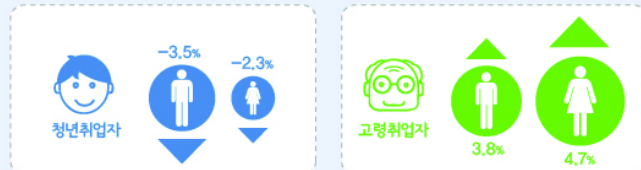
서울,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



● 서울시 취업자 수는
2002년 4,783천명에서
2012년 5,036천명으로
연평균 0.5% 증가

● 청년취업자 수는
연평균 2.9%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수는
연평균 4.1% 증가

● 청년취업자 수는
남성이 연평균 3.5%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
고령취업자 수는
여성이 연평균 4.7%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



■ 청년층 ■ 고령층

주: 청년취업자 15세~29세, 고령취업자 60세이상
자료: 2002~2012 행정구역 성/연령별 취업자 (통계청)

서울,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

- 서울시 취업자 수는 2002년 4,789천명에서 2012년 5,036천명으로 연평균 0.5% 증가
 - 서울시 취업자 수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 취업자 수는 2012년 5,036천명으로 2002년 대비 5.3% 증가
- 청년취업자 수는 연평균 2.9%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수는 연평균 4.1% 증가
 - 청년취업자 수는 2012년 903천명으로 2002년 대비 25.1% 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10년간 연평균 2.9% 감소
 - 고령취업자 수는 2012년 513천명으로 2002년 대비 50% 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간 연평균 4.1% 증가
- 청년취업자 수는 남성이 연평균 3.5%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
고령취업자 수는 여성이 연평균 4.7%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
 - 남성 청년취업자 수는 2002년 566천명에서 2012년 396천명으로 연평균 3.5% 감소하였으며, 여성 청년취업자 수는 2002년 639천명에서 2012년 507천명으로 연평균 2.3% 감소
 - 남성 고령취업자 수는 2002년 216천명에서 2012년 313천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며, 여성 고령취업자 수는 2002년 126천명에서 2012년 200천명으로 연평균 4.7% 증가
 - 2012년 청년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크지만 남성 취업자가 연평균 더 빠르게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크지만 여성 취업자가 연평균 더 빠르게 증가

주: 청년취업자 15세~29세, 고령취업자 60세이상

자료 : 2002~2012 행정구역 성/연령별 취업자 (통계청)

〈표 1〉 2002년 ~ 2012년 서울 청년층 고령층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청년층(15 - 29세)	고령층(60세이상)	계
2002	1,206	342	4,783
2003	1,167	311	4,753
2004	1,149	337	4,831
2005	1,124	361	4,890
2006	1,063	388	4,906
2007	1,053	419	4,940
2008	1,017	400	4,922
2009	967	413	4,835
2010	945	444	4,936
2011	958	471	5,012
2012	903	513	5,036
2002년 대비 2012 증가율	-25.1%	50.0%	5.3%
연평균 증가율	-2.9%	4.1%	0.5%

〈표 2〉 2002년 ~ 2012년 서울 청년층 고령층 남성 여성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남성 취업자 수			여성 취업자 수		
	15 - 29세	60세 이상	계	15 - 29세	60세 이상	계
2002	566	216	2,804	639	126	1,978
2003	539	195	2,781	629	116	1,972
2004	514	215	2,792	635	122	2,039
2005	513	232	2,822	611	129	2,068
2006	487	243	2,815	576	145	2,091
2007	482	263	2,834	571	156	2,107
2008	460	257	2,827	557	142	2,095
2009	431	260	2,779	536	154	2,057
2010	420	277	2,811	526	168	2,125
2011	431	295	2,848	527	175	2,165
2012	396	313	2,835	507	200	2,201
2002년 대비 2012 증가율	-30.0	44.9	1.1	-20.7	58.7	11.3
연평균 증가율	-3.5%	3.8%	0.1%	-2.3%	4.7%	1.1%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소비

서울의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0%로 백화점 중심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3월 서울의 백화점 판매액은 1조1,608억원으로 전국(2조5,891억원)의 44.8%,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117억원으로 전국(3조7,018억원)의 30.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대형마트 판매는 1.9% 감소하였다. 전국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한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다.

고용

서울의 3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하락, 남·녀 취업자 수는 각각 증가, 고용률 하락, 실업률이 하락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4개월 연속 감소폭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세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으로 6개월 연속 물가지수 증감률의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한 반면,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1.8% 하락하였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2%p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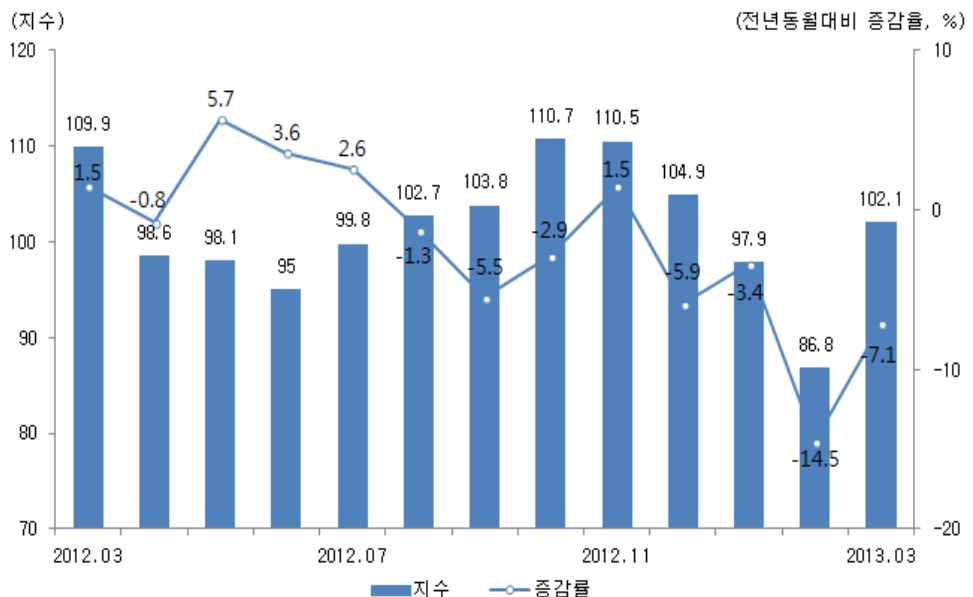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7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전세가격은 경기부진으로 전세 재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봄 이사철 이동수요도 증가하며, 하락세를 지속하는 매매와는 달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지역 특히 강북구와 용산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 생 · 산 |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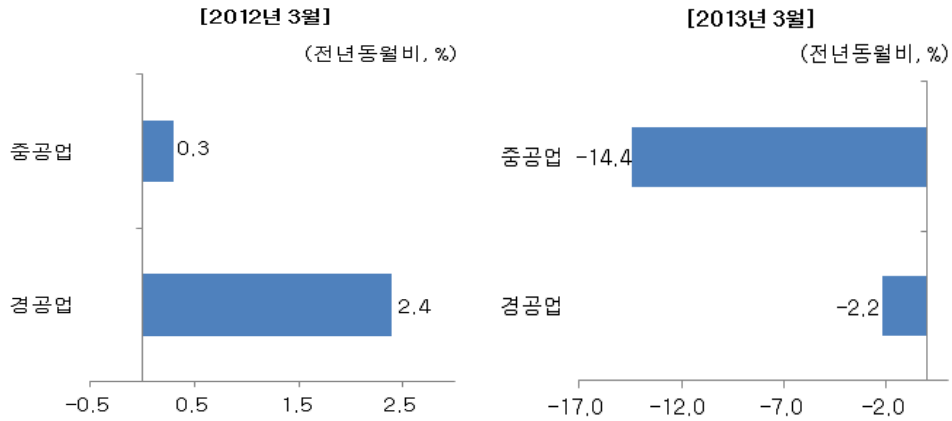
■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 2012년 3월에 비해 여전히 하락세

- 서울의 2013년 3월 산업생산지수 102.1(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 경공업부문은 2.2%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무 및 플라스틱(81.7%), 섬유제품(42.1%), 금속가공(38.4%) 증가, 기계장비(-33.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9.6%), 의복 및 모피(-7.7%) 각각 감소
- 최근 3개월 만에 지수 100을 상회하는 값으로 복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은 108.1(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
- 제조업 생산은 102.1(2010=100)이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료정밀광학(12.1%), 반도체 및 부품(5.9%)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0.0%), 기계장비(-8.4%) 등에서 각각 감소하여 총 3.0%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3.1%)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5.0%), 숙박·음식점(-1.5%) 등에서 감소하여 총 0.7% 증가

| 출하 · 재고 순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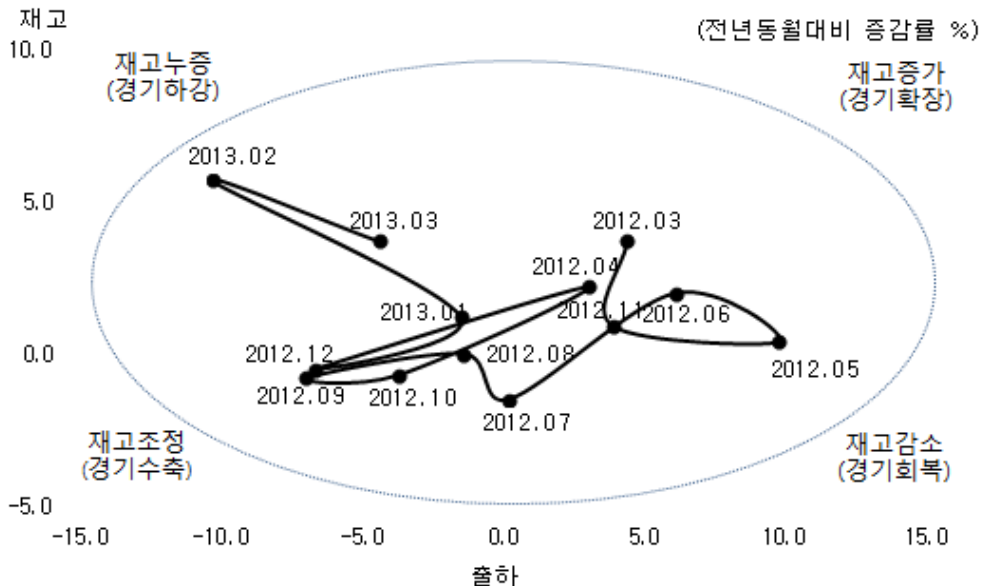
서울의 3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3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3월 재고지수는 107.3(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서울의 3월 출하지수는 106.6(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4.7%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중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판매액 백화점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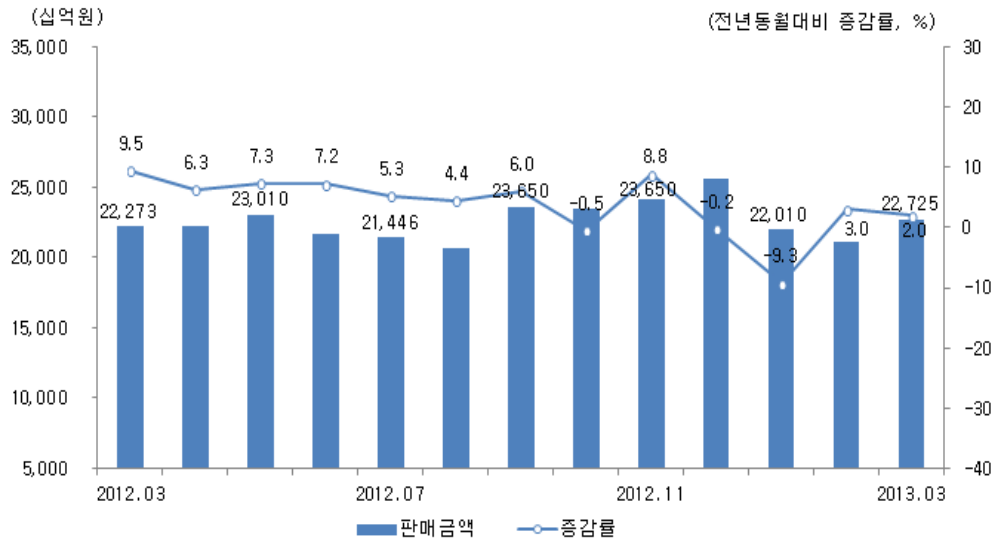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725억원으로 전국(6조2,909억원)의 36.1%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608억원으로 전국(2조5,891억원)의 44.8%,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117억원으로 전국(3조7,018억원)의 30.0%를 차지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8.1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대형마트 판매는 1.9% 감소

■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20.0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3%, 대형마트는 1.5%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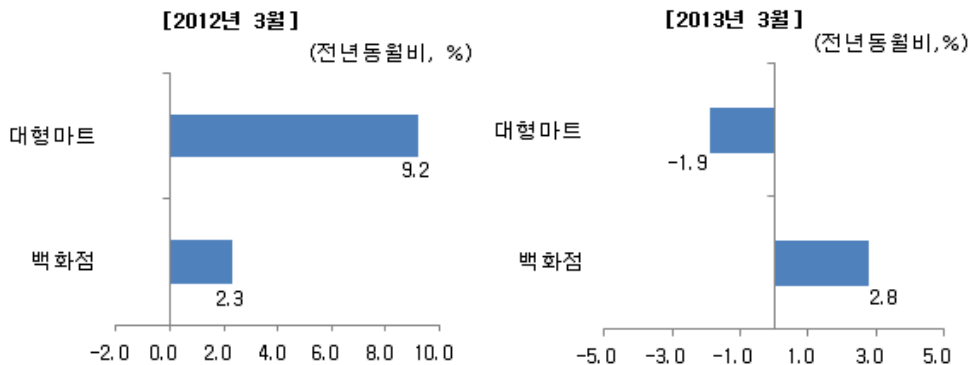
■ 전국의 3월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편의점(9.3%)가 1위를 차지

- 전국의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29조 3,07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전국의 3월 소매판매액지수를 재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0.3%)는 감소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7.7%), 승용차 등 내구재(0.8%)가 늘어 1.7% 증가
-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전문소매점(-3.2%)을 제외하고 백화점(9.4%), 대형마트(1.6%) 등 나머지 소매점에서 모두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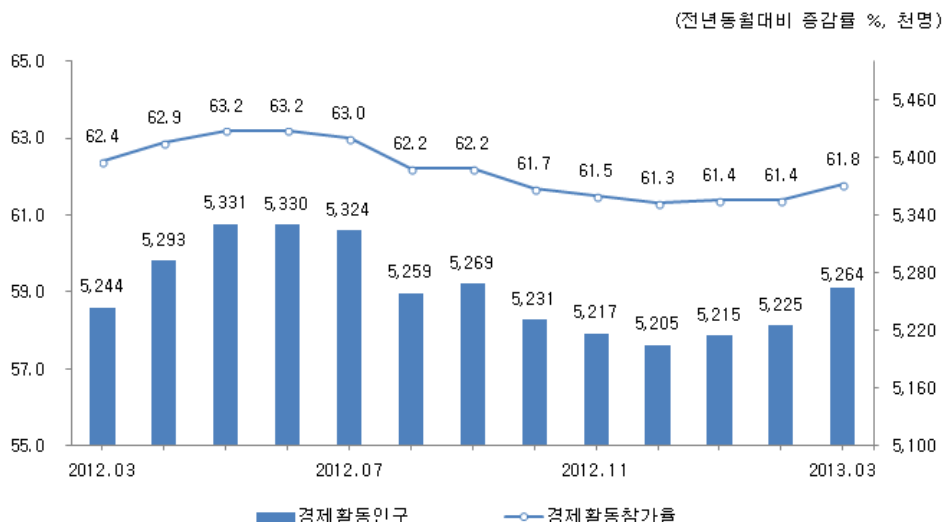
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61.8%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서울의 3월 15세 이상 인구는 851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7천명(1.3%)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천명(0.4%)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5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7천명(2.7%)이 증가

■ 전국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3월 15세 이상 인구는 4,196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6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39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7천명(0.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8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7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52만5천명으로 8만1천명(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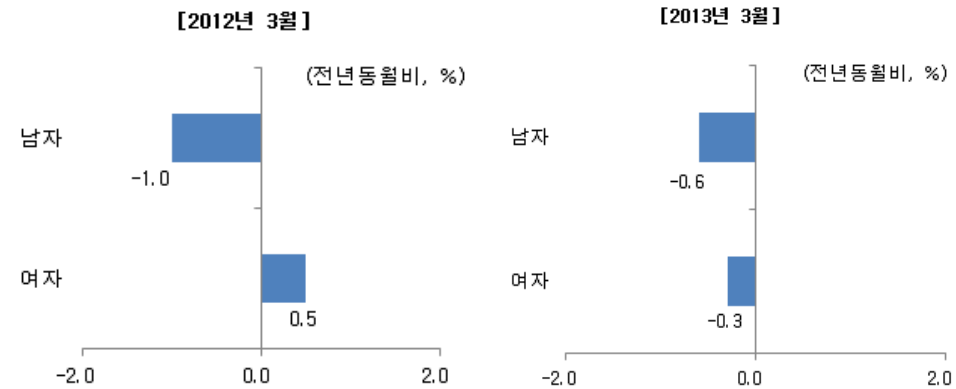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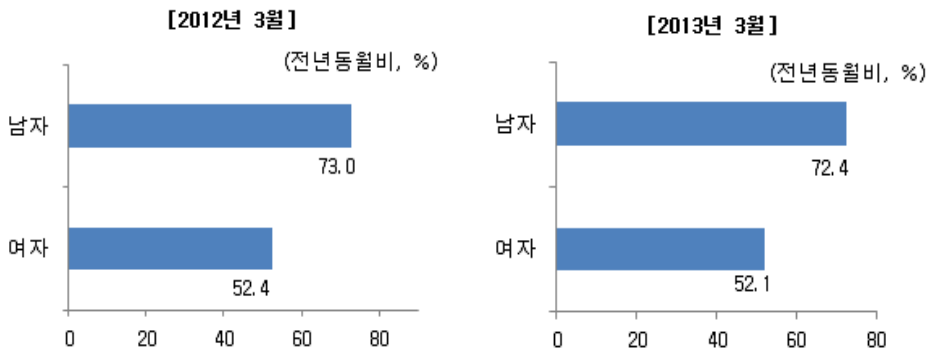
■ 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인구 남자 하락, 여자 증가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6만3천명, 여자는 23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1%p 감소, 여자는 1.1%p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2.4%, 여자는 52.1%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6%p, 0.3%p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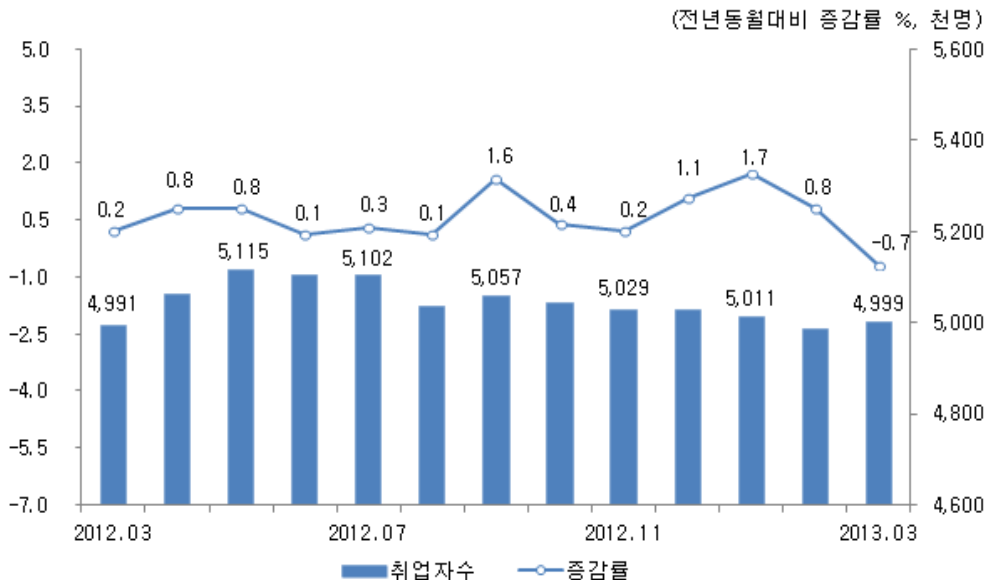
서울의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서울의 3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서울의 3월 취업자는 499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0.2%)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만7천명, 여자는 218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천명 증가, 여자는 2천명(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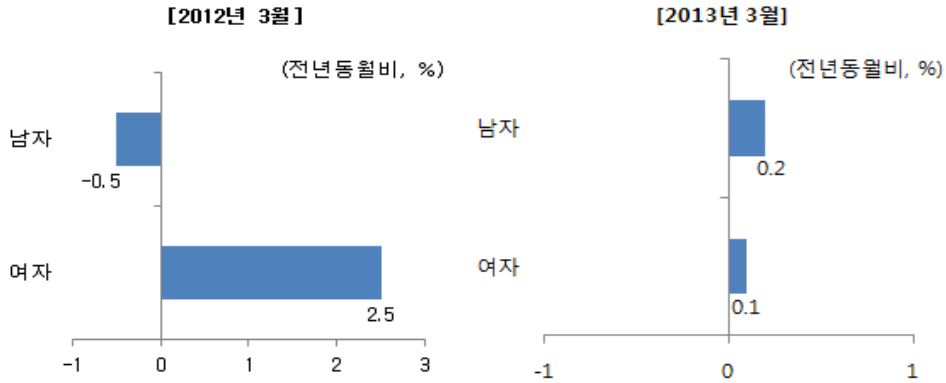
■ 전국의 3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3월 취업자는 2,45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9천명(1.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8천명(1.0%), 여자는 1,017만6천명으로 10만1천명(1.0%)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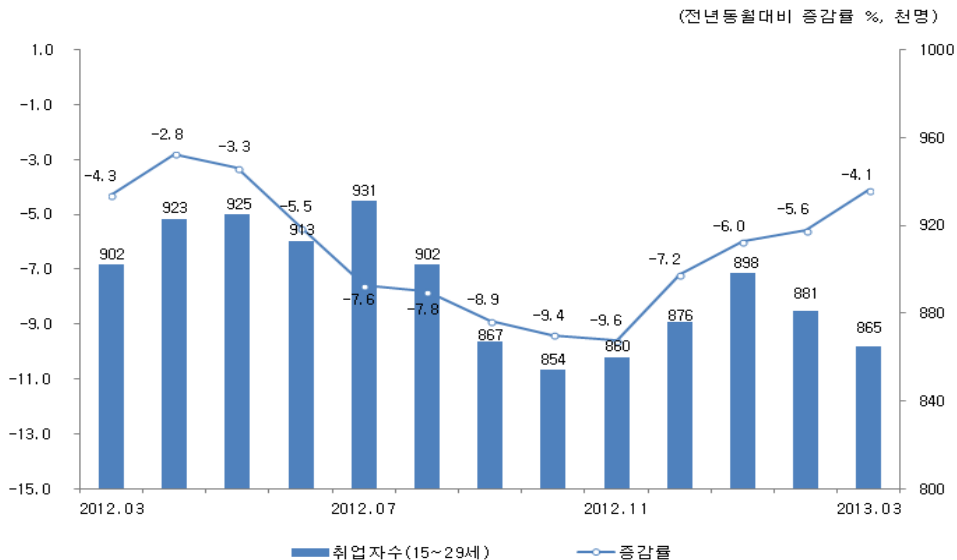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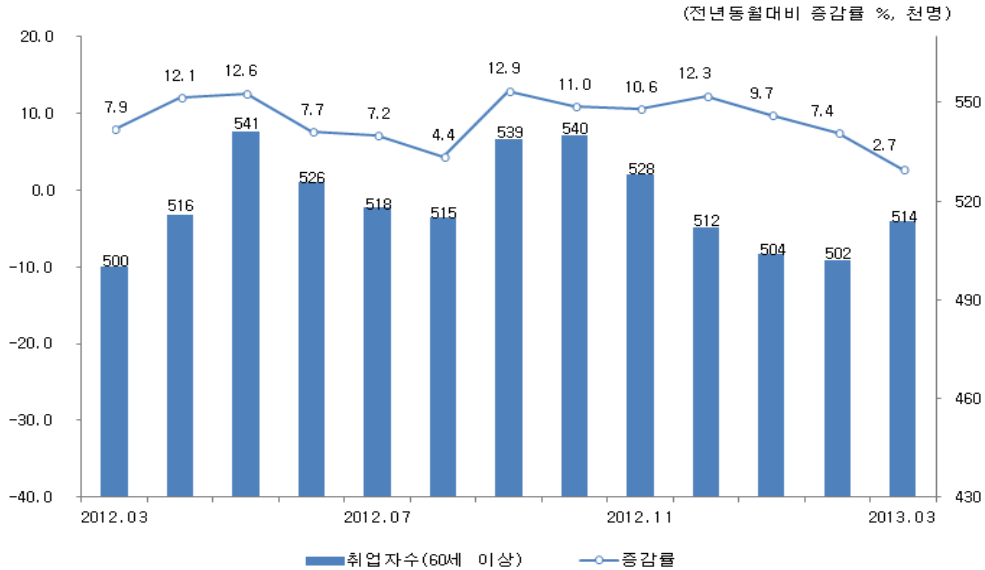
■ 서울의 3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3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폭 감소
- 서울의 3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3천명(-52.7%), 제조업 6만2천명(-12.3%), 건설업 2만1천명(-5.8%) 등은 각각 감소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8만3천명(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만4천명(2.9%)은 각각 증가

■ 직업별로 사무, 관리자·전문가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5만2천명(5.2%), 관리자·전문가 6만4천명(4.6%)이 각각 증가
-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천명(-28.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8만4천명(-6.0%), 서비스판매종사자 2만1천명(-1.7%)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임금, 임금근로자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8천명(-4.9%),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명(-3.5%)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0만9천명(4.7%)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만6천명(-4.0%), 일용근로자 0.2천명(-0.1%)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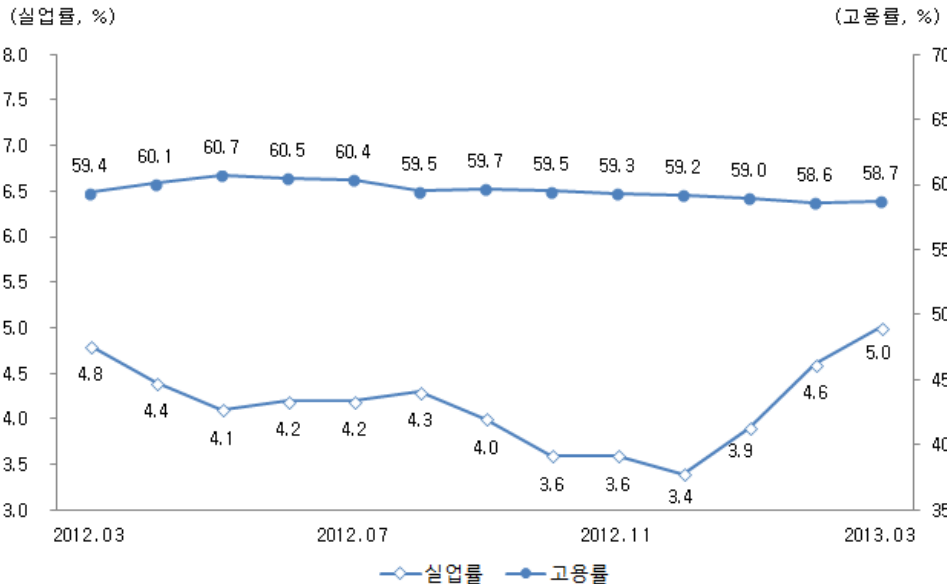
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하락세

■ 서울의 3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3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8%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여자는 49.4%로 0.8%p 감소
- 2013년 3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8.4%)에 비해 0.3%p 낮은 수준

■ 서울의 3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3월 실업자는 2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천명(4.7%)이 증가
- 실업률은 5.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여자는 5.2%로 1.0%p 증가
- 2013년 3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5%)에 비하여 1.5%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하락세

■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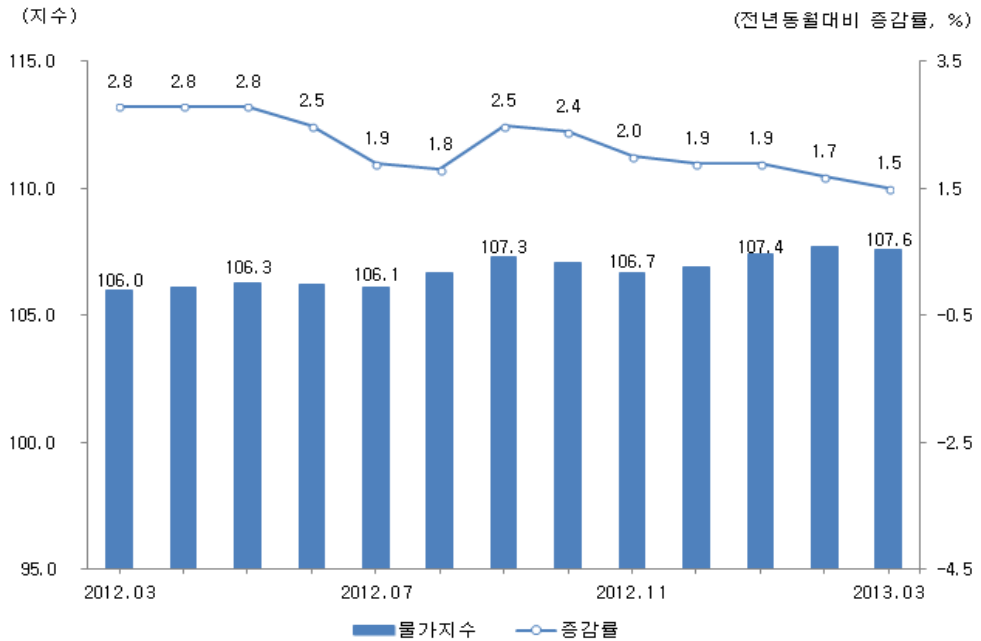
- 2013년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통신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3%), 교통(-0.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5%)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2.5% 하락,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는 1.0%, 6.5%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그 중 집세는 3.0%, 공공서비스 0.7% , 개인서비스 1.6% 각각 상승

■ 서울의 3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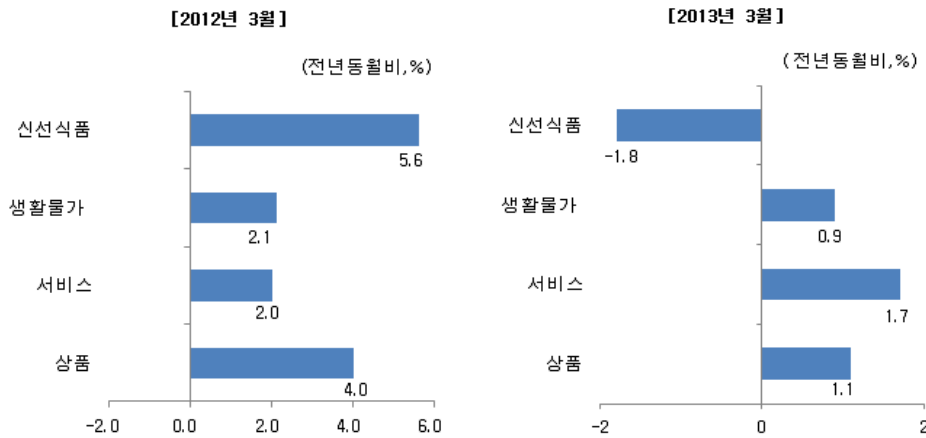
■ 전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201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전북은 전국보다 높은 1.4~1.9% 상승률을 기록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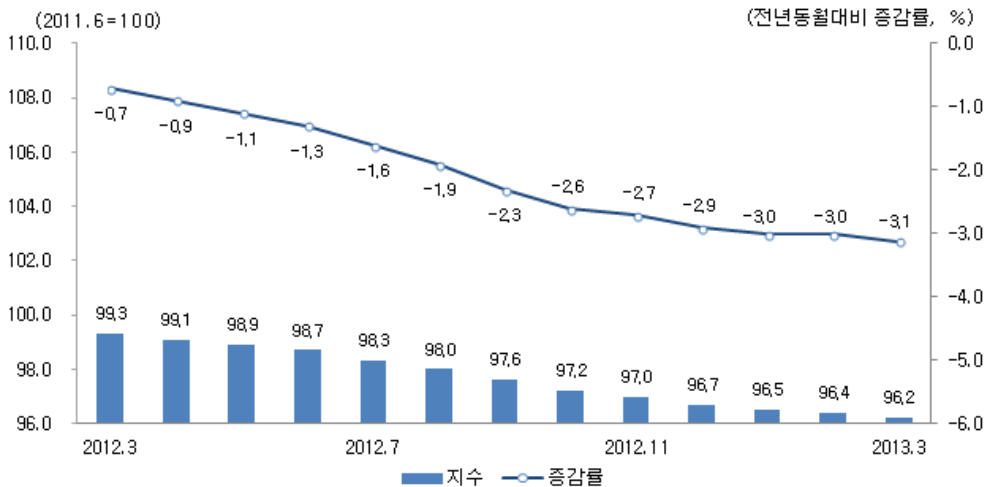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강동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3%, 0.2% 하락

■ 전국의 3월 주택매매가격 새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보합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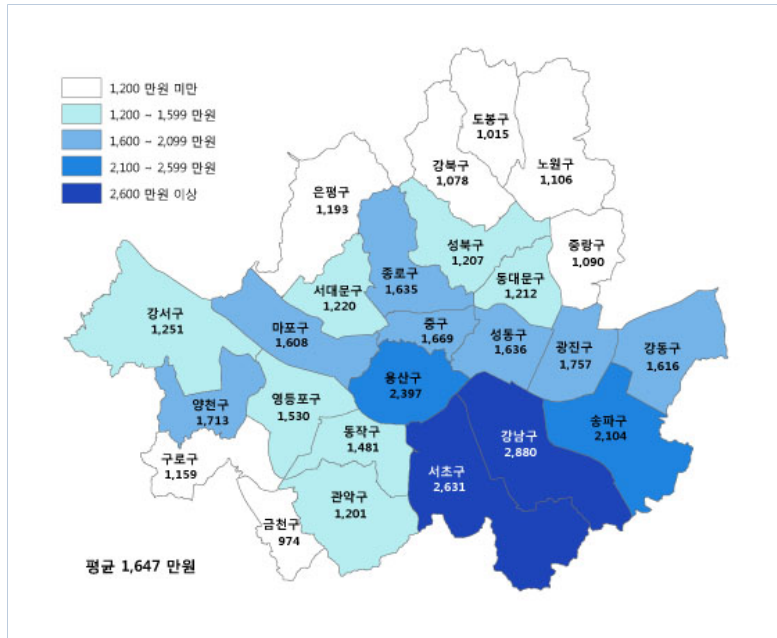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매매시장의 장기적인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새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9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됨
- 수도권은 매매거래 부진이 심화되면서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2%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2%, 0.1%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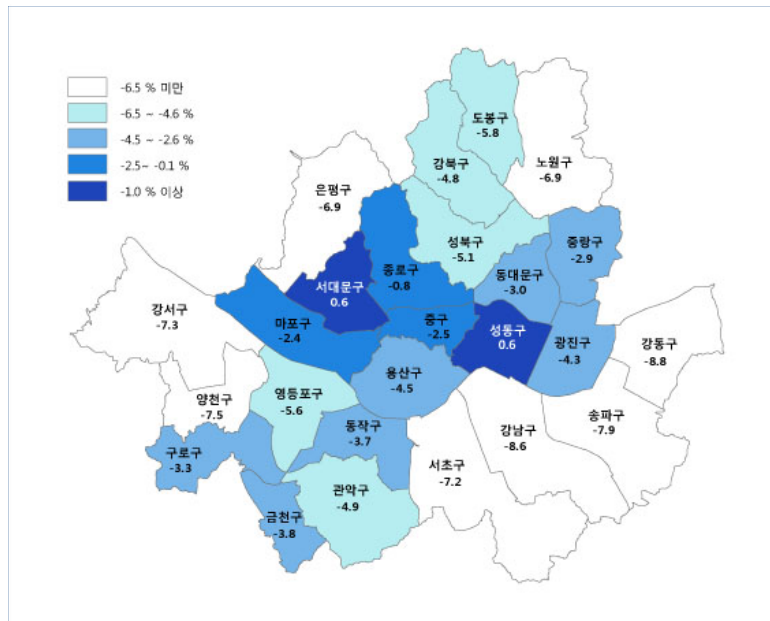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용산구, 성동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용산구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사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시장 침체 분위기가 심화되어 전월대비 0.7%로 큰 폭 하락
- **강남지역은 강동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강서구, 동작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강서구는 전세선호로 인해 매매시장이 한산함을 유지하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6% 하락
 - 동작구에서는 매수자들의 관망세 속에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매물적체가 심화되며 전월대비 0.5% 하락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47만원으로 전월대비(1655.9만원)대비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14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2,880만원), 서초구(2,631만원), 용산구(2,397만원), 송파구(2,104만원), 광진구(1,75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74만원), 도봉구(1,015만원), 강북구(1,078만원), 중랑구(1,090만원), 노원구(1,10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3월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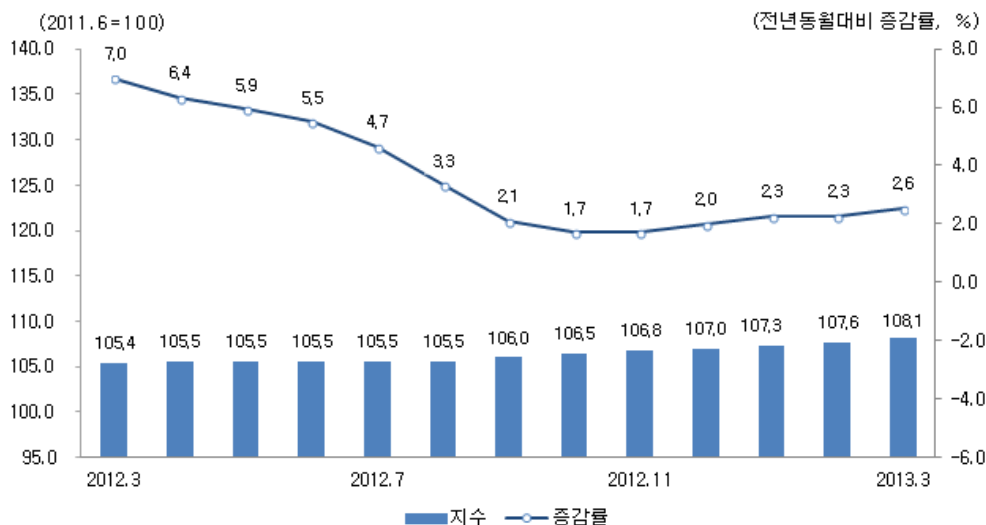
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7개월 연속 상승

■ 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4% 상승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2%, 0.4% 상승하였고 아파트는 0.5% 상승

■ 전국의 3월 주택전세가격 봄 이사철 전세수요 증가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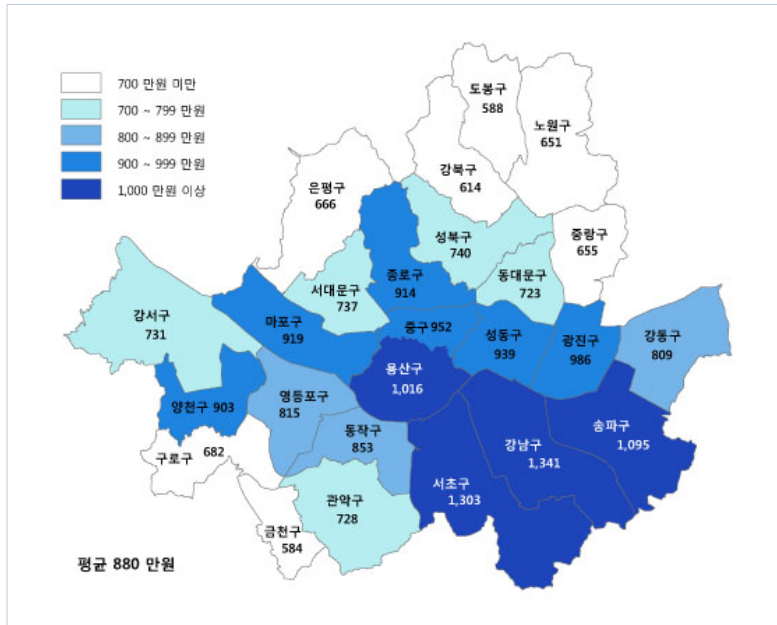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와 새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기대로 인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선호 수요가 증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4% 상승
- 수도권과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였고 광역시는 0.5%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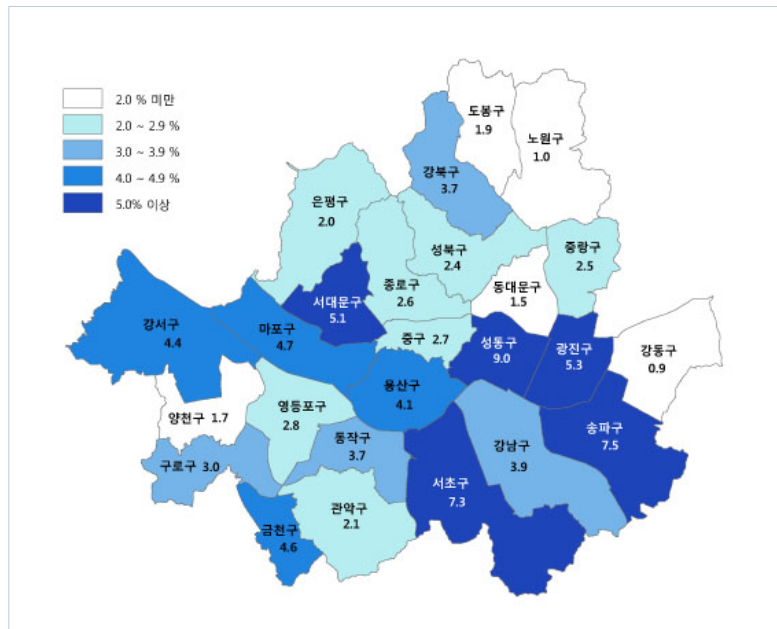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북구, 용산구 순으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5% 상승**
 - 강북구에서는 중소형평형 및 역세권 인근 단지 기준으로 신혼부부 수요 및 봄 이사철 수요가 증가하며 매물 부족이 심화되어 전월대비 0.7% 상승
- **강남지역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였고 특히 송파구와 강남구가 다른 지역 대비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4% 상승**
 - 송파구는 신혼부부 수요 및 봄 이사철 수요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에 삼성 SDS의 신천동 입주로 인한 근로자 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며 전월대비 0.8%로 큰 폭 상승
 - 서초구에서는 재건축 이주가 마무리 되면서 그동안 상승되었던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79.5만원으로 전월대비(874.7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1,341만원), 서초구(1,303만원), 송파구(1,095만원), 용산구(1,016만원), 광진구(98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84만원), 도봉구(588만원), 강북구(614만원), 노원구(651만원), 중랑구(65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3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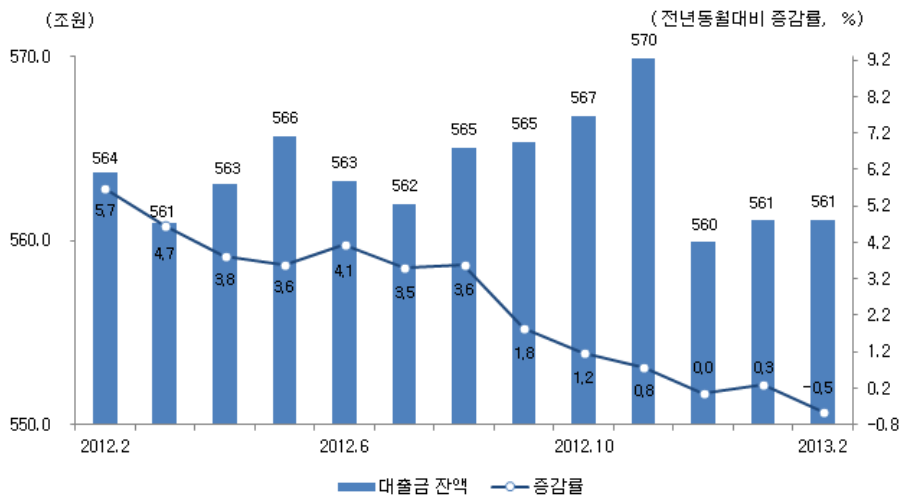
서울의 2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증가

■ 2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2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1조 916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09억원 (0.002%)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1조 7,697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9조 3,219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3% 감소, 3.1% 증가

■ 2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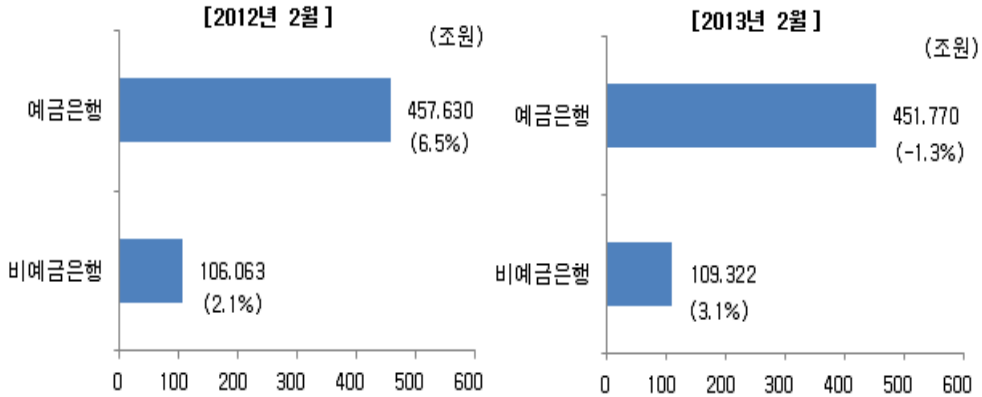
- 2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53조 3,128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 888억원(0.14%)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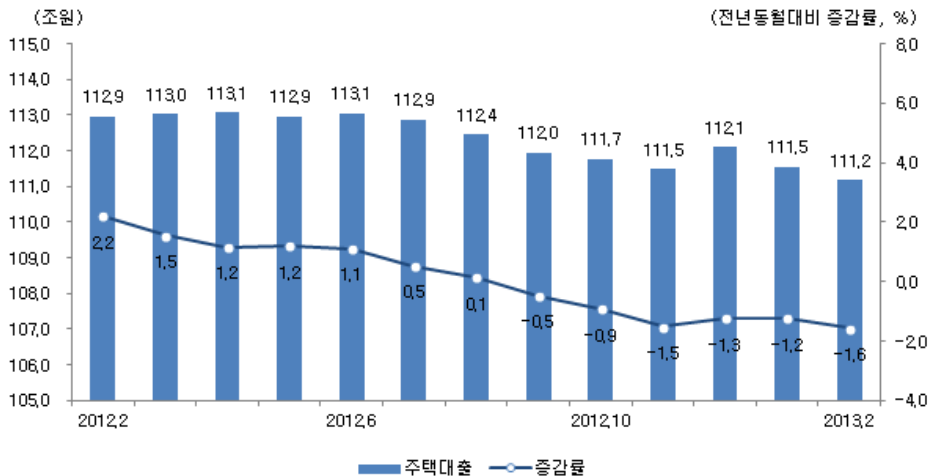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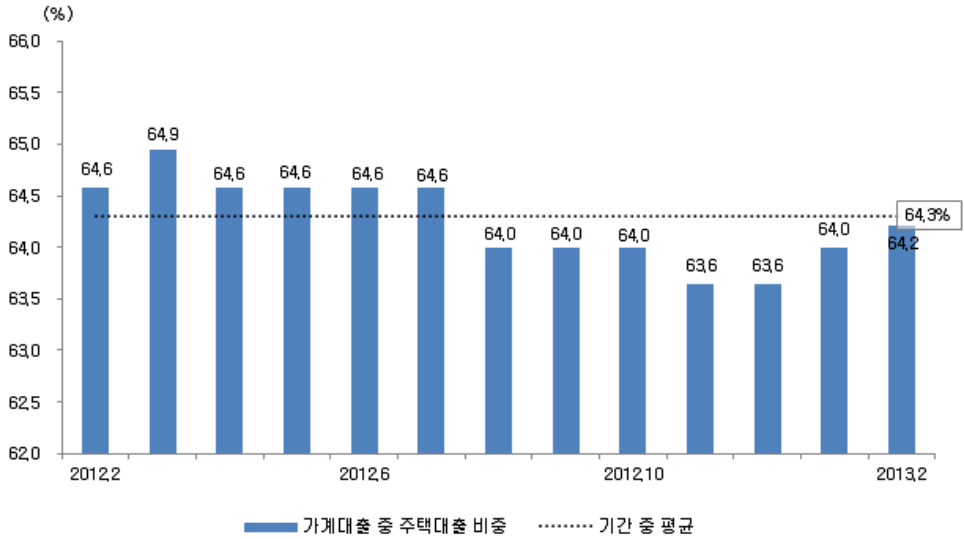
- 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4,982억원으로 전월대비 5,841억원(0.3%) 소폭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1,624억원(64.2%)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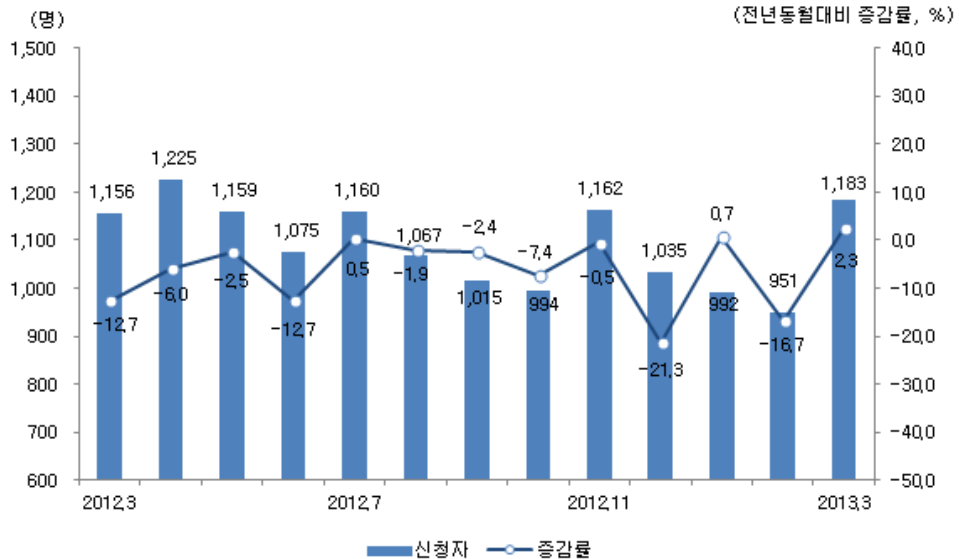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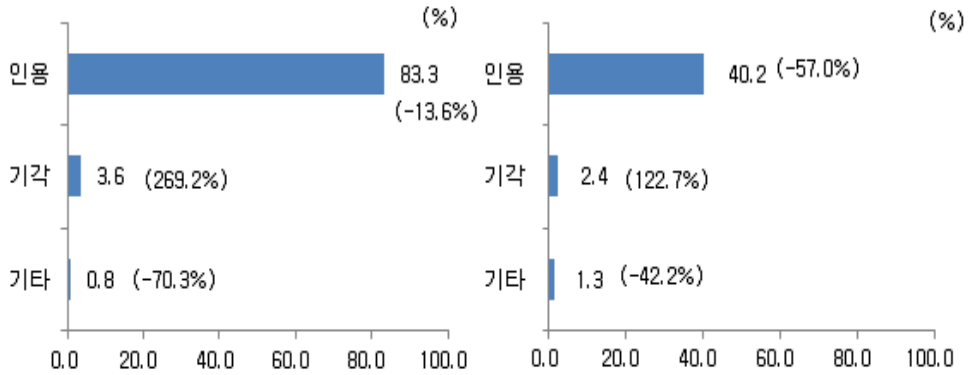
■ 3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183명으로 전월대비 24.4% 증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269.2%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2.4%로 전년동월대비 122.7%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3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3월 면책 처리현황

|신·설·및·부·도·법·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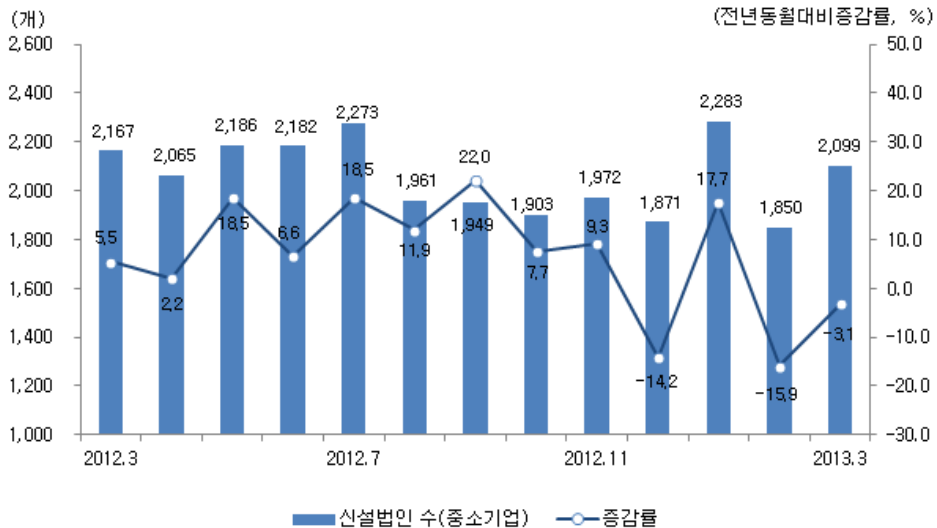
서울의 3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99개로 전월대비 13.5%(249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3.1%(68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14.3%(20개)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14.3%(33개), 12.8%(194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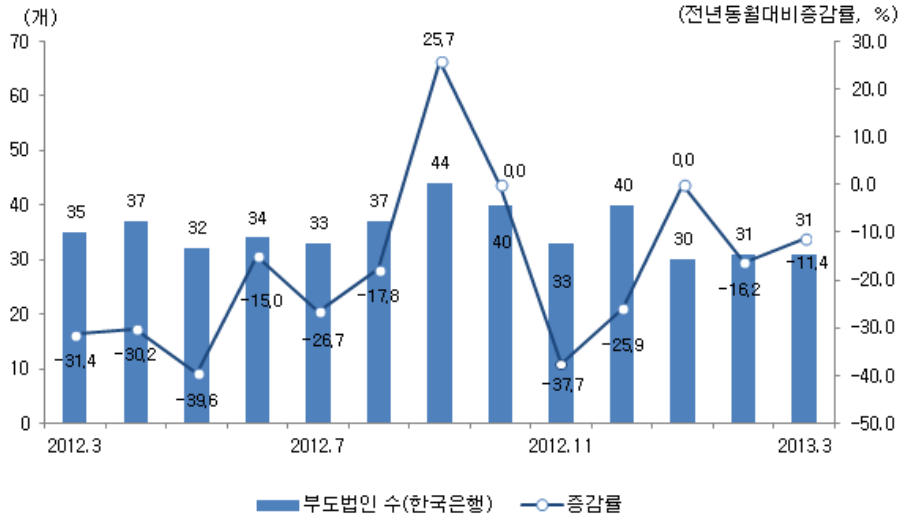
■ 서울의 3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1개로 전월대비 보험수준이며 전년동월대비 11.4%(4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60.0%(6개) 감소,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각각 26.7%(4개) 증가, 40.0%(2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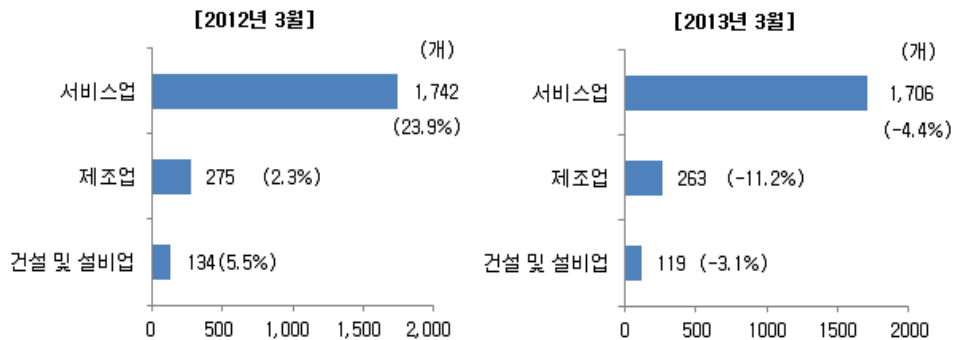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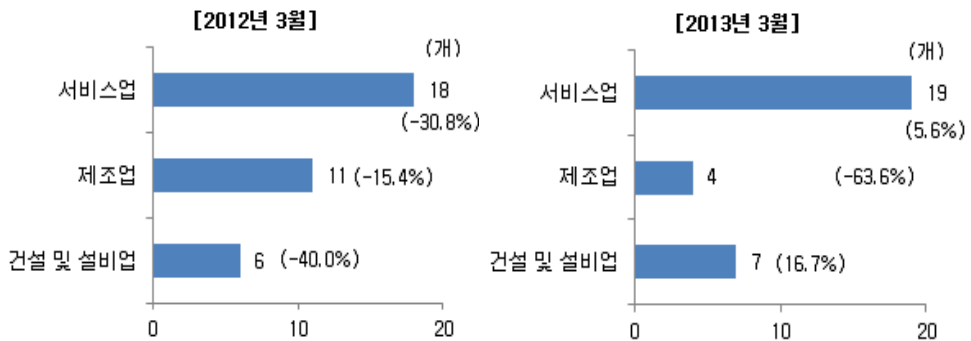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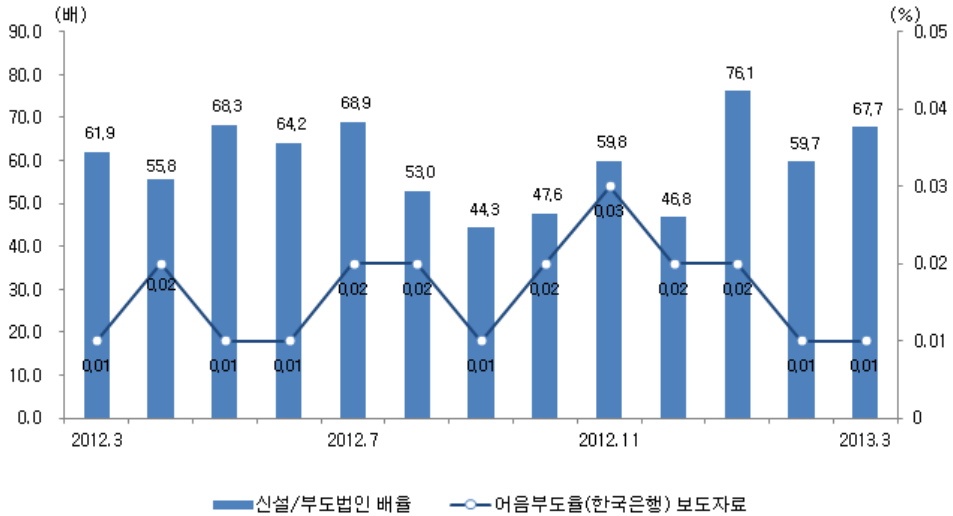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3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7.7배로 전월(59.7배)보다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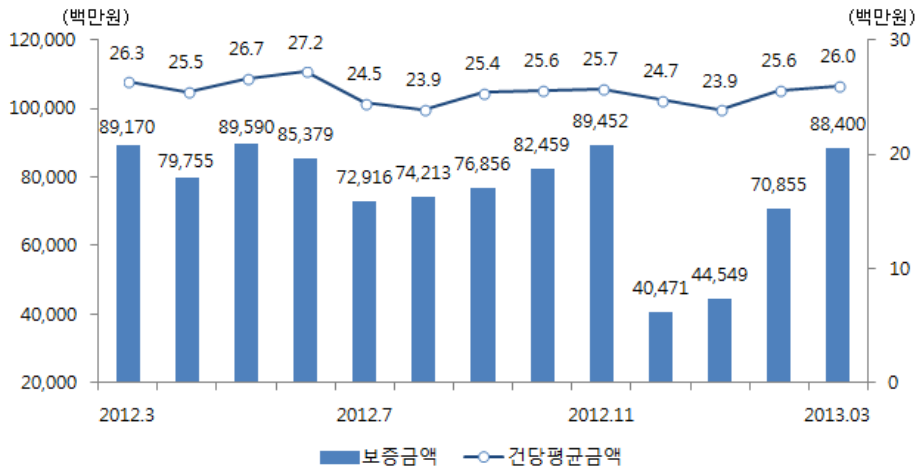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3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88,400백만원, 3,400건으로 전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24.8%, 22.6%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6%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0.9% 감소, 0.4%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금액은 1.3%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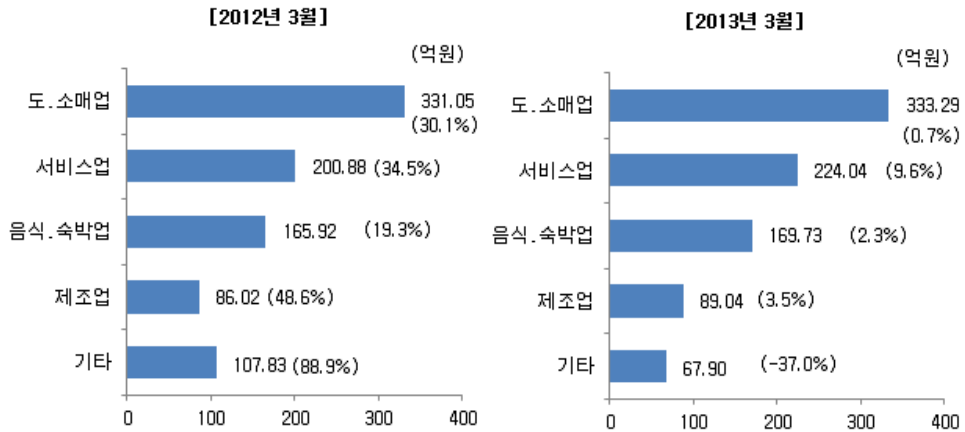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3월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0.1%로 전월(10.4%) 대비 0.3%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7.7%로 전월(34.6%) 대비 3.1%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9%로 전월(8.0%)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7.2%로 전월(35.4%)대비 1.7%p 증가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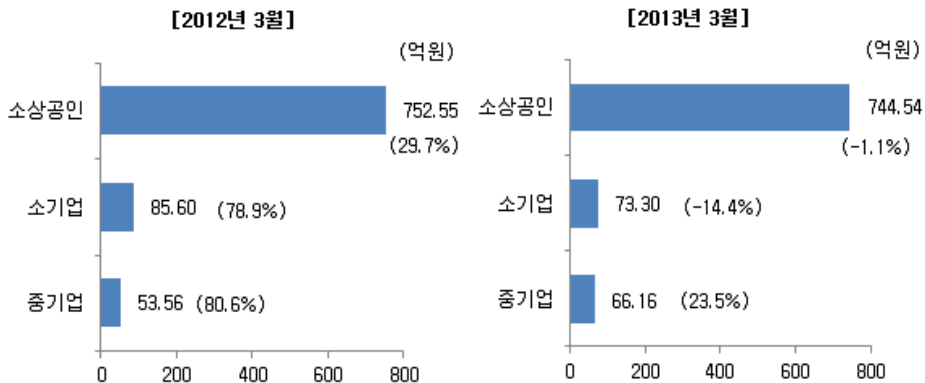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4.2%로 전월대비 3.2%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3.9%로 전월대비 1.4%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3%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3.4%로 전월대비 0.8%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7.5%로 전월대비 3.3%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2.6%로 전월대비 2.3%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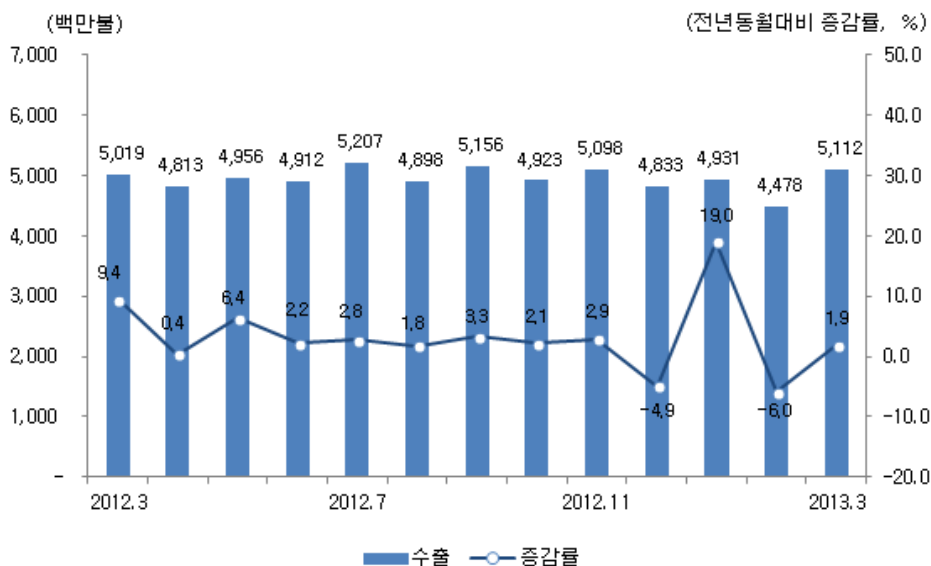
서울의 3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3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수출은 5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하였고 수입은 107.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7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고 수입은 441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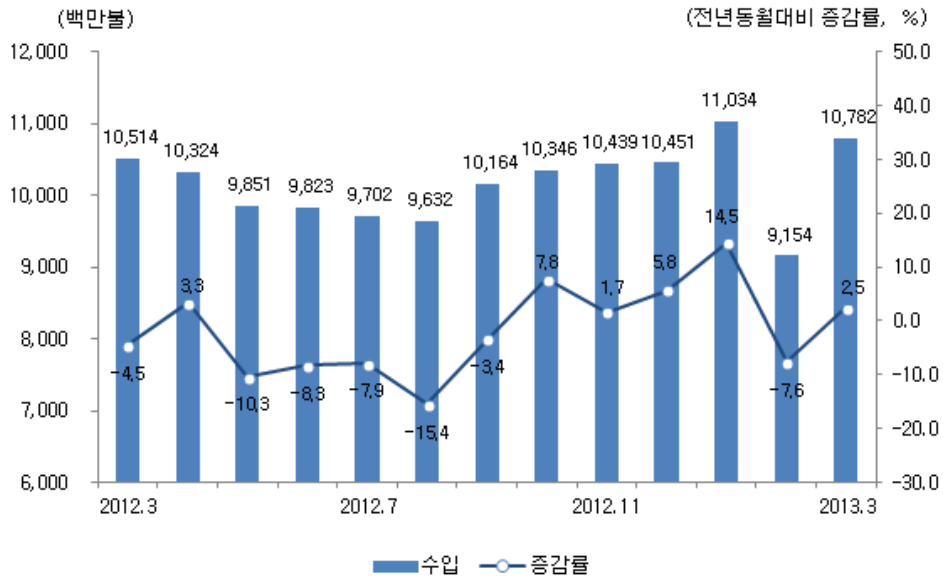
■ 서울의 3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47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2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컴퓨터,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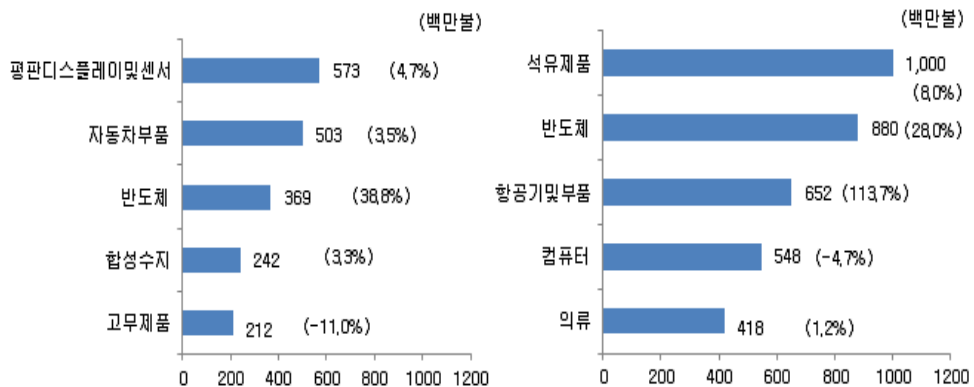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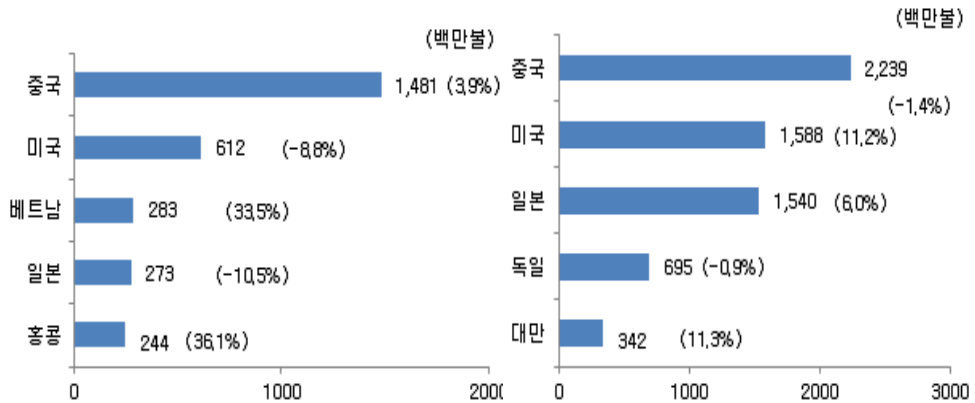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3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3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3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한 1,481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2,239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3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3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부 록 :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금 융

■ 부동산

1.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10. 1/4	98.6	94.0	104.1	96.3	98.8	100.8
2/4	96.4	103.7	95.1	103.1	92.9	95.6
3/4	94.9	101.8	92.0	101.0	99.0	97.8
4/4	110.0	102.3	108.8	100.4	104.3	100.9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101.9
2/4	92.5	99.1	90.8	98.2	100.6	103.7
3/4	98.6	105.5	97.2	106.7	107.8	106.2
4/4	110.6	102.9	111.4	103.1	109.9	106.0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105.7
2/4	94.7	102.6	95.6	104.2	102.6	105.9
3/4	97.3	104.1	94.5	104.1	106.9	105.1
4/4	109.6	103.4	111.1	103.5	109.4	106.0
2013. 1/4p	102.4	98.0	110.1	102.7	107.3	109.8
2011. 3	111.3	103.8	112.7	102.9	99.8	101.9
4	99.4	100.4	98.8	98.9	101.6	103.0
5	90.3	97.6	88.0	96.8	102.1	103.7
6	87.8	99.3	85.6	98.9	100.6	103.7
7	93.0	103.6	91.2	105.8	104.2	105.0
8	98.9	106.6	97.4	106.9	103.7	104.3
9	103.9	106.2	103.0	107.3	107.8	106.2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08.7
11	106.9	101.0	104.4	97.8	110.6	106.9
12	115.4	101.1	119.9	102.9	109.9	106.0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104.3
2	108.7	106.9	115.1	109.7	101.1	102.4
3	112.7	105.2	116.3	106.4	103.5	105.7
4	98.7	103.2	101.7	105.0	102.5	104.4
5	94.6	102.1	94.8	103.6	102.5	104.1
6	90.8	102.6	90.3	104.1	102.6	105.9
7	95.3	105.7	91.1	105.5	102.6	103.5
8	97.8	105.3	96.1	105.7	103.7	104.5
9	98.7	101.2	96.3	101.1	106.9	105.1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07.9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09.2
12	112.2	102.3	117.5	103.5	109.4	106.0
2013. 1	107.1	95.3	114.6	99.8	106.4	105.0
2p	94.6	98.9	104.0	104.7	106.9	109.1
3p	105.6	99.9	111.7	103.5	107.3	109.8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로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출하·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10. 1/4	-2.7	8.5	98.6	1.6	10.8	104.1	1.0	-1.9	98.8
2/4	10.3	5.9	96.4	7.1	6.9	95.1	-5.2	-4.7	92.9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3.1/4p	-5.2	-7.1	102.4	-0.8	-4.5	110.1	3.6	3.7	107.3
3	5.5	8.2	111.3	3.9	6.0	112.7	0.1	1.0	99.8
4	-3.3	0.5	99.4	-3.9	-0.8	98.8	1.1	4.1	101.6
5	-2.8	-4.6	90.3	-2.1	-4.7	88.0	0.7	4.2	102.1
6	1.7	-8.3	87.8	2.2	-8.4	85.6	0.0	8.3	100.6
7	4.3	-1.0	93.0	7.0	2.2	91.2	1.3	5.1	104.2
8	2.9	6.9	98.9	1.0	7.5	97.4	-0.7	4.9	103.7
9	-0.4	5.6	103.9	0.4	7.2	103.0	1.8	8.9	107.8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	-8.7	-3.8	105.0	-5.1	-1.2	113.0	-0.8	1.3	106.5
2p	5.5	-12.8	94.8	7.0	-8.5	105.3	1.0	3.0	104.1
3p	1.0	-6.3	105.6	-1.1	-4.0	111.7	0.6	3.7	107.3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2013년 3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3	2013.2	2013.3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407	8,508	8,515	107	1.3
경제활동인구	5,244	5,225	5,264	21	0.4
(참가율)	(62.4)	(61.4)	(61.8)	(-0.6)	-
남 자	2,967	2,942	2,963	-4	-0.1
(참가율)	(73.0)	(71.8)	(72.4)	(-0.6)	-
여 자	2,277	2,284	2,302	25	1.1
(참가율)	(52.4)	(51.7)	(52.1)	(-0.3)	-
취 업 자	4,991	4,984	4,999	9	0.2
(고용률)	(59.4)	(58.6)	(58.7)	(-0.7)	-
농림어업	6	4	3	-3	-52.7
광공업	506	450	443	-63	-12.5
· 제조업	505	450	443	-62	-12.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479	4,531	4,554	75	1.7
· 건설업	353	320	332	-21	-5.8
· 도소매·음식숙박업	1,301	1,304	1,289	-12	-0.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93	2,062	2,075	83	4.2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33	844	858	24	2.9
실 업 자	253	241	265	12	4.7
(실업률)	(4.8)	(4.6)	(5.0)	(0.2)	-
비경제활동인구	3,164	3,283	3,251	87	2.7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2013년 3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3	2013.2	2013.3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4,991	4,984	4,999	9	0.2
직 업 별	관리자전문가	1,386	1,428	1,450	64	4.6
	사무종사자	996	1,067	1,047	52	5.2
	서비스판매종사자	1,215	1,208	1,194	-21	-1.7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9	4	6	-3	-28.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85	1,278	1,302	-84	-6.0
성 별	남자	2,810	2,798	2,817	6	0.2
	여자	2,181	2,186	2,183	2	0.1
종 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139	1,065	1,085	-54	-4.8
	자영업주	978	915	930	-48	-4.9
	무급가족종사자	160	150	155	-6	-3.5
	임금근로자	3,852	3,919	3,915	63	1.6
	상용근로자	2,331	2,444	2,440	109	4.7
	임시근로자	1,150	1,102	1,104	-46	-4.0
	일용근로자	372	373	371	0	-0.1
취 업 시 간 대 별	36시간 미만	527	2,043	518	-10	-1.8
	1-17시간	183	227	178	-5	-2.6
	18-35시간	345	1,817	339	-5	-1.5
	36시간 이상	4,399	2,813	4,412	13	0.3
	36-53시간	3,114	2,295	3,362	248	8.0
	54시간이상	1,285	519	1,050	-235	-18.3
	일 시 휴 직	65	128	70	5	7.9
	주당평균취업시간	45.7	37.2	44.4	-1.3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 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8. 11	4,897	-1.6	194	-4.9	3.8	3,189	5.3
12	4,853	-1.2	195	-6.6	3.9	3,237	4.5
2009. 10	4,840	-1.4	192	3.4	3.8	3,306	3.2
11	4,879	-0.4	216	11.3	4.2	3,248	1.8
12	4,877	0.5	208	6.6	4.1	3,261	0.7
2010. 3	4,846	0.5	267	6.4	5.2	3,256	0.7
4	4,925	1.9	264	3.9	5.1	3,184	-1.2
5	4,995	2.9	219	-9.1	4.2	3,167	-1.7
6	4,988	2.0	221	-5.8	4.2	3,177	-0.7
7	5,013	3.1	234	-4.8	4.5	3,144	-2.4
8	4,962	3.6	223	-0.3	4.3	3,209	-3.4
9	4,960	3.3	225	5.1	4.3	3,210	-3.3
10	4,972	2.7	239	24.1	4.6	3,186	-3.6
11	4,981	2.1	213	-1.5	4.1	3,206	-1.3
12	4,998	2.5	224	7.3	4.3	3,184	-2.4
2011. 1	4,914	2.7	247	-19.1	4.8	3,246	-0.7
2	4,947	3.0	274	-7.7	5.3	3,186	-2.4
3	4,980	2.8	286	7.2	5.4	3,143	-3.5
4	5,021	1.9	263	-0.2	5.0	3,125	-1.9
5	5,074	1.6	243	11.1	4.6	3,097	-2.2
6	5,098	2.2	236	6.7	4.4	3,079	-3.1
7	5,089	1.5	226	-3.5	4.2	3,093	-1.6
8	4,962	1.4	223	1.7	4.3	3,141	-2.1
9	4,979	1.4	223	107	4.3	3,141	-2.1
10	5,024	1.0	210	-12.0	4.0	3,147	-1.2
11	5,018	0.7	208	-2.4	4.0	3,150	-1.8
12	4,971	-0.5	223	-0.3	4.3	3,181	-0.1
2012. 1	4,925	0.2	241	-2.3	4.7	3,220	-0.8
2	4,925	-4.0	287	13.0	5.5	3,168	-0.6
3	4,991	0.2	253	-11.5	4.8	3,164	0.7
4	5,061	0.8	233	-11.7	4.4	3,124	0.0
5	5,115	0.8	216	-11.1	4.1	3,099	0.1
6	5,105	0.1	226	-4.2	4.2	3,110	1.0
7	5,102	0.3	221	-2.0	4.2	3,130	1.2
8	5,035	0.1	224	-1.1	4.3	3,201	1.9
9	5,057	1.6	212	-8.3	4.0	3,197	0.6
10	5,043	0.4	188	-10.4	3.6	3,241	3.0
11	5,029	0.2	188	-9.4	3.6	3,264	3.6
12	5,027	1.1	178	-20.0	3.4	3,289	3.4
2013. 1	5,011	1.7	204	-15.6	3.9	3,285	2.0
2	4,984	0.8	241	-16.0	4.6	3,283	3.6
3	4,999	0.2	265	4.7	5.0	3,251	2.7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주택매매가격 지수

<2011.6 = 100.0>

연 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6	81.5	79.8	76.1	83.7	82.1	75.7	87.5
2007	88.9	91.4	87.9	95.1	95.2	90.2	99.7
2008	92.5	97.9	97.7	98.1	100.4	100.6	100.4
2009	92.7	98.5	99.1	97.9	99.8	101.0	98.8
2010	1	94.2	100.6	100.9	100.4	101.9	102.4
	2	94.5	100.9	101.0	100.7	102.2	102.5
	3	94.7	100.9	101.1	100.8	102.2	102.5
	4	94.9	100.9	101.0	100.8	102.0	102.2
	5	94.9	100.7	100.8	100.5	101.6	101.9
	6	94.9	100.3	100.5	100.2	101.0	101.3
	7	94.8	100.0	100.2	99.8	100.5	100.8
	8	94.8	99.6	99.8	99.4	100.1	100.3
	9	94.9	99.5	99.6	99.3	99.8	100.0
	10	95.1	99.3	99.5	99.2	99.6	99.8
	11	95.4	99.3	99.4	99.2	99.5	99.7
	12	95.8	99.3	99.4	99.3	99.6	99.7
2011	1	96.3	99.5	99.5	99.5	99.7	99.7
	2	97.1	99.7	99.6	99.9	100.0	99.9
	3	98.0	100.0	99.9	100.1	100.2	100.1
	4	98.8	100.0	99.9	100.1	100.2	100.1
	5	99.5	100.0	100.0	100.1	100.1	100.1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100.4	99.9	99.9	99.9	99.8	99.9
	8	100.9	99.9	99.9	99.9	99.7	99.8
	9	101.5	99.9	99.8	99.9	99.6	99.7
	10	101.9	99.8	99.8	99.8	99.5	99.6
	11	102.3	99.7	99.8	99.7	99.3	99.5
	12	102.4	99.6	99.7	99.6	99.2	99.4
2012	1	102.6	99.5	99.6	99.4	99.0	99.4
	2	102.8	99.4	99.6	99.3	98.9	99.3
	3	102.9	99.3	99.5	99.2	98.6	99.1
	4	103.0	99.1	99.3	98.8	98.2	98.8
	5	103.1	98.9	99.2	98.6	97.9	98.6
	6	103.0	98.7	99.0	98.4	97.6	98.4
	7	102.9	98.3	98.7	97.9	97.1	97.9
	8	102.8	98.0	98.5	97.5	96.6	97.5
	9	102.7	97.6	98.2	97.0	96.0	97.1
	10	102.6	97.2	97.8	96.7	95.4	96.4
	11	102.5	97.0	97.6	96.4	95.1	96.0
	12	102.4	96.7	97.4	96.1	94.7	95.8
2013	1	102.3	96.5	97.2	95.8	94.4	95.5
	2	102.3	96.4	97.1	95.7	94.1	95.2
	3	102.2	96.2	96.9	95.5	93.9	94.9

주: 2011년 6월부터 <2011.6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1.6=100.0〉

연 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6		78.2	76.3	75.6	76.9	76.4	75.5	77.2
2007		82.2	81.9	82.0	81.9	82.0	82.4	81.7
2008		84.6	85.2	87.1	83.5	83.3	85.3	81.6
2009		84.7	85.3	87.3	83.4	82.8	84.6	81.4
2010	1	87.4	89.3	90.3	88.3	87.8	88.5	87.3
	2	88.0	89.9	90.8	89.1	88.7	89.1	88.3
	3	88.6	90.6	91.6	89.7	89.3	89.9	88.8
	4	89.1	91.1	92.1	90.1	89.7	90.4	89.2
	5	89.5	91.3	92.3	90.4	90.0	90.6	89.5
	6	89.8	91.5	92.4	90.6	90.1	90.6	89.8
	7	90.1	91.5	92.4	90.8	90.2	90.5	89.9
	8	90.4	91.8	92.5	91.1	90.3	90.6	90.1
	9	91.0	92.4	93.1	91.8	91.0	91.2	90.8
	10	91.7	93.3	93.9	92.7	92.0	92.1	91.9
	11	92.7	94.1	94.4	93.7	93.0	92.9	93.2
	12	93.4	94.6	94.8	94.5	93.8	93.3	94.1
2011	1	94.2	95.5	95.6	95.5	94.8	94.2	95.3
	2	95.7	97.2	97.2	97.1	96.8	96.4	97.1
	3	97.4	98.5	98.7	98.3	98.6	98.6	98.5
	4	98.5	99.2	99.3	99.0	99.2	99.4	99.1
	5	99.3	99.6	99.7	99.4	99.5	99.8	99.4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100.8	100.8	100.7	101.0	101.1	101.0	101.2
	8	101.9	102.1	101.9	102.4	102.8	102.8	102.9
	9	103.3	103.8	103.7	104.0	105.1	105.2	105.0
	10	104.2	104.7	104.6	104.9	106.2	106.5	106.0
	11	104.8	105.0	104.9	105.0	106.5	107.0	106.1
	12	104.9	104.9	104.8	104.9	106.3	106.9	105.9
2012	1	105.1	104.9	104.9	104.9	106.3	106.8	105.9
	2	105.5	105.2	105.1	105.2	106.5	107.0	106.0
	3	106.0	105.4	105.5	105.4	106.7	107.4	106.2
	4	106.5	105.5	105.7	105.4	106.8	107.5	106.2
	5	106.6	105.5	105.7	105.3	106.7	107.5	106.0
	6	106.8	105.5	105.7	105.3	106.7	107.4	106.0
	7	106.9	105.5	105.7	105.3	106.6	107.4	106.0
	8	107.0	105.5	105.7	105.3	106.6	107.4	106.0
	9	107.4	106.0	106.1	105.8	107.2	107.9	106.6
	10	107.9	106.5	106.4	106.5	107.9	108.3	107.5
	11	108.3	106.8	106.6	107.0	108.4	108.5	108.3
	12	108.6	107.0	106.7	107.4	108.7	108.6	108.8
2013	1	108.8	107.3	106.9	107.8	109.0	108.8	109.3
	2	109.1	107.6	107.1	108.2	109.5	109.2	109.8
	3	109.6	108.1	107.6	108.6	110.1	109.8	110.4

주: 2011년 6월부터 〈2011.6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3. 2013년 3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2013.3=100.0>

구 분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매매가격
강 북 구	100.0	100.0	100.0	100.0	1,078
광 진 구	100.0	100.0	100.0	100.0	1,757
노 원 구	100.0	100.0	100.0	100.0	1,106
도 봉 구	100.0	100.0	100.0	100.0	1,015
동대문구	100.0	100.0	100.0	100.0	1,212
마 포 구	100.0	100.0	100.0	100.0	1,608
서대문구	100.0	100.0	100.0	100.0	1,220
성 동 구	100.0	100.0	100.0	100.0	1,636
성 북 구	100.0	100.0	100.0	100.0	1,207
용 산 구	100.0	100.0	100.0	100.0	2,397
은 평 구	100.0	100.0	100.0	100.0	1,193
종 로 구	100.0	100.0	100.0	100.0	1,635
중 구	100.0	100.0	100.0	100.0	1,669
중 랑 구	100.0	100.0	100.0	100.0	1,090
강 남 구	100.0	100.0	100.0	100.0	2,880
강 동 구	100.0	100.0	100.0	100.0	1,616
강 서 구	100.0	100.0	100.0	100.0	1,251
관 악 구	100.0	100.0	100.0	100.0	1,201
구 로 구	100.0	100.0	100.0	100.0	1,159
금 천 구	100.0	100.0	100.0	100.0	974
등 작 구	100.0	100.0	100.0	100.0	1,481
서 초 구	100.0	100.0	100.0	100.0	2,631
송 파 구	100.0	100.0	100.0	100.0	2,104
양 천 구	100.0	100.0	100.0	100.0	1,713
영등포구	100.0	100.0	100.0	100.0	1,530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4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p>

연 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율(₩/U\$)
2006	4.83	5.17	4.48	4.19	1,352.2	955.5
2007	5.23	5.70	5.16	4.77	1,713.2	929.2
2008	5.27	7.02	5.49	4.78	1,529.5	1,102.6
2009	4.04	5.81	2.63	1.98	1,429.0	1,276.4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3	2.60	2.95	2.81	2.74	1,990.2	1,102.2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2006		19,801	1,717	1,714	16,344	0.06	891
2007		20,063	1,606	1,674	16,555	0.01	735
2008		18,133	1,717	1,520	14,865	0.02	977
2009		20,401	3,081	1,402	15,838	0.02	741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3	2,099	263	119	1,706	0.01	31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분	2013년			전월비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서울 계	2,283	1,850	2,099	249	13.5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16	9	11	2	22.2
제조업 계	325	230	263	33	14.3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35	31	27	-4	-12.9
섬유 및 가죽	61	47	54	7	14.9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11	6	14	8	133.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	2	10	8	400.0
고무 및 화학제품	50	31	38	7	22.6
기계, 금속	34	30	23	-7	-23.3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78	53	76	23	4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6	4	4	0	0.0
기타 제품제조업	38	26	17	-9	-34.6
건설업 계	133	99	119	20	2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3	8	5	166.7
건설업	129	96	111	15	15.6
서비스업 계	1,809	1,512	1,706	194	12.8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2	0	1	1	0.0
도매 및 소매업	562	395	463	68	17.2
운수업	39	32	37	5	15.6
숙박 및 음식점업	38	36	39	3	8.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76	324	333	9	2.8
금융 및 보험업	196	0	212	212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	98	119	21	2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90	0	302	302	0.0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104	103	107	4	3.9
교육서비스업	45	39	49	10	2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0	2	2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27	22	22	0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27	463	20	-443	-95.7

자료: 중소기업청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3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3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3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3년 3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3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3년 3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3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3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3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4월호)

2005년 3월호

[권두컬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정병순

2005년 4월호

[권두컬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2005년 5월호

[권두컬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욱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재도약 및 향후 발전 방안|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2005년 6월호

[권두컬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림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5년 7월호

[권두컬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방향|김현아

2005년 8월호

[권두컬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

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2005년 9월호

[권두컬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한류|황기연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

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2005년 10월호

[권두컬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김진호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박희석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오승구

2005년 11월호

[권두컬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김성진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한정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홍순영

2005년 12월호

[권두컬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나성린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서승환
2006년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6년 1월호

[권두컬럼]
윤리경영, 환경경영|조동성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윤형호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박희석, 홍나미
[자치구경제이슈]
「중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성린

2006년 2월호

[권두컬럼]
수도권의 경쟁력|왕연균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김경환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정희운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활성화|전성근

2006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 ...|박희석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
|정병순
중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견|박래현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오근

2006년 4월호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창호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윤형호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병민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석근

2006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병순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최경규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김상일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동직

2006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신창호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동기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
견조사|박희석, 박지윤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초
를 향하여|황인식

2006년 7월호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송용일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최경규
한국기술평가의 현황|양동우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유근

2006년 8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라도삼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
구문모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
주성재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성용

2006년 9월호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박정수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안|안종석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임
일영

2006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김철원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찬동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성|박종구
[자치구 경제이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김이기

2006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2006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
로|신창호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
화|정병순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윤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정경효

2007년 1월호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
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
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
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정원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윤형호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
로 변신|강현주
[자치구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재고」를 위한 발전방향
|김영수

2007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
|박창일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김남현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킹|원용희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윤·박희석

[자치구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재형

2007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유병규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오찬수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정병순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산업경제센터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경숙

2007년 6월호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김철원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
금기용

서울시 컨벤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전홍석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을 꿈꾸다|강현주

[자치구탐방]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이동명

2007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윤보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전인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
신창호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과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희·박희석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
제 활성화 방안|윤내원

2007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조경엽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부경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조향문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강현주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박지희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
최영수

2007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 차문중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 고준성
한미 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김범수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 박희석·박지희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권장오

2007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환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 정경원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 신창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 최두은
[생생리포트]
‘가능성에 올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 강현주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경림

2007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 김문환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 장광렬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 박용재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 산업경제센터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 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윤중

2007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 안정숙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 장동찬
서울시 드라마 산업| 고정민
[생생리포트]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덕수

2008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 김경환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하여 최재현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 홍석기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 박희석·박지희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김상호

2008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력정책 박영범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유길상

외국인력 정책과제 이규용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서울시장개발연구원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서울시장개발연구원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자선

2008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

장운중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안|이홍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

|전영재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박희

석·권태구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과 사

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박기순

2008년 4월호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박영준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장동련

디자인 서울|윤종영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조달호·김세훈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고광득

2008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전택수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옥성수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라도삼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

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황필성

2008년 6월호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김정인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고준호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이부

형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

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윤영표

2008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자영업의 현황과 인프라 이상현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 전인우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손민중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자영업의 위험성 조달
 호 김세훈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
 김재형

2008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박승록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박희석 한진아
 고유가와 민생대책 이달석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 조달호 김세훈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 최동욱

2008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외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 김태희
 [경제포커스]
 외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 이경희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 윤남수
 [생생리포트]
 경기에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 조
 달호 이춘화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김
 태두

2008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
 김영인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
 김민자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 조익래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 박희석 한진아
 [자치구탐방]
 가칭 「양재 R&D」 밸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
 경제 활성화 하익봉

2008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
 이주선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임준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과 방향 윤형호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
 망 조달호 이춘화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 임수근

2008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 최경수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 이부형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 2助| 김선빈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2009년 1월호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 박희석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 김선홍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선인명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 조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종규

2009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세계 물 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 권형준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 윤형호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 윤주환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김백곤

2009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 김정인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활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 이정택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 박병욱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봉로

2009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 김성수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철| 김문기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 이상규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 조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진호

2009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산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안
부경진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고준호

녹색성장을 위한 LED조명 발전방안주대영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삼규표

2009년 6월호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변양규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이운형호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허재준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제도 운영배영철

2009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창석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양재섭
장남중권미리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왕건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대권장오

2009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략위정현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장현영
게임한류의 성과김민규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례박경호

2009년 9월호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최생림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이운형호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김창래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통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영환

2009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김찬화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여재천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윤수영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박희석
한진아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 | 김은혜

2009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 | 이장재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 | 문경일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
| 이지평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최용순

2009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
정희운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킹 전략 | 김찬동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에의 시사
점 | 김영수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전략 | 이미령

2010년 1월호

[이달의 이슈]

다자이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 전략 | 라도삼

[경제포커스]

다자인을 꿈꾸고 다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 | 최영호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
홍석기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양성태

2010년 2월호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 | 김성태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 | 임상수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 | 김민성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컨텐츠 | 최용순

2010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령자 가계재정 분석 | 윤형호

[경제포커스]

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 김신영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 | 임춘식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
우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
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
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
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특성분석
 |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의 시사점
 박호정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인·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
 호·이춘화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1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
 종인

2010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성호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행|문경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안재현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
 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곤

2010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재도약과 IT융합산
 업|정병순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
직 발전방안|조연숙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조
달호·이춘화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
상영

2010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
의 발전방향|송재용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
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
김묵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태섭

2011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
가?|변미리
글로벌 메가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
이관수

2011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 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기업탐방]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SR센터|조달호·정규진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이관수

2011년 4월호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훑어보기|김묵한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김상태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이종관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한상필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의 비트컴퓨터의 역할|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 방안|이갑수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안남우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김태홍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진종순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박희석·한진아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김선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조호정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디컬|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이달의 이슈]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김도훈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성한경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신상영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박정현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
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찬영
취업부모의 교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홍승아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
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김동열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
이은애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 국내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
양승희

2012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목한·김범
식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종석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
곽지원

2012년 4월호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
나도삼

현사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송기철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
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
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
룡

[생생리포트]

작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
곽지원

2012년 6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
|김태곤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강오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
|김동환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 |홍미영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 |박희석·한진아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이달의 이슈]
청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 |김영생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 |김영미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 CEO의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양승희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
|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 |이종욱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 협동조합금융
의 제언 |김자봉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 |박희석·한진아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지물가 추이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계대출 현황 |서울경제연구
센터

2012년 10월호

[이달의 이슈]
도시 어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 |용호
성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권영돈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 |박희석·양승
희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서울 아파트 평당 (3.3㎡) 전세가격과 증가율 |서
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M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
황 및 상생협력 강화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김범식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 박희석
한진아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서울 지역업체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 | 서울
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남기철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정성미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 | 박희
석 양승희

[인포그래픽스]

서울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서울시민 주거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 | 서울경
제연구센터

2013년 1월호

[이달의 이슈]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 김경혜

중산층의 변화와 대응 김용기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최동욱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 | 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 남윤형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
성화 방안 | 노희봉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 | 박
승돈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석유 소비량 | 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이달의 이슈]

창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 양현봉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동주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안해철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 | 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4월호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 | 박덕배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배준식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 | 서울
경제분석센터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 | 서울경제분석센터